

제3기(2011. 8. 1 ~ 2013. 7. 3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2013. 7. 31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차 례

1.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 구성	1
2) 주요 기능	3
3) 예산 현황	4
2.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성과	
1) 위원회 활동	6
2) 소위원회 활동	10
3) 도서관정책 포럼	13
3.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1) 국제도서관연맹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활동	16
2) 도서관과 관계기관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18
〈참고자료〉 1. 위원회 및 소위원장 회의 결과(요약)	25
2. 도서관정책 포럼 개요와 논의 내용	78
3.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인사말 및 축사 모음	110
4. 사진으로 보는 제3기 위원회 활동	135

1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 구성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을 임기로 하여 제2기의 김봉희 위원장이 연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직 14명, 당연직 10명 등 총 24명을 위원으로 구성¹⁾하여 운영하였다.

○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 방법

- 근거 : 「도서관법」 제13조

- 위원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정책과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1) 제1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직 13명, 당연직 13명 등 26명으로 구성(임기: 2007.6.12~2009.6.11.) 하였고,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김봉희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직 17명, 당연직 10명 등 27명으로 구성(임기: 2009.6.12~2011.6.11.) 하여 활동하였음. 제2기 위원회 임기 종료부터 제3기 위원회 구성까지의 공백(2011.6.12~7.31.)은 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이 위원장을 위촉한 후,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규정한 개정 「도서관법」(2011년 4월 5일 공포, 2011년 7월 6일 시행)에 따른 것임.

○ 위촉직 위원(14명)

성 명	현 직 ²⁾
김봉희(연임)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강은주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고영은 ³⁾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뜨인돌출판사 대표)
곽동철	(사)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박지향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장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육근해(연임)	한국전자도서관 관장
이은철(연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임호균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차미경(연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당연직 위원⁴⁾(10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2013.3.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당연직 변경(11명)

2) 제3기 위원회 구성 당시의 현직임.

3) 고영은 위원은 2012년 10월 25일 개인 사정으로 도서관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함.

4) 당연직 위원은 제3기 도서관위원회 구성 당시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소위원회 구성

제3기 위원회는 도서관정책 제안 및 주요사항 심의·조정 등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대학·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식정보 격차해소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제3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 분	위원장	위 원
공공도서관 소위원회(3명)	차미경	박영숙, 임호균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3명)	곽동철	박지향, 이은철
학교도서관 소위원회(4명)	송기호	강은주, 고영은, 이지연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3명)	육근해	남태우, 정성희

2) 주요 기능

○ 「도서관법」 제12조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함)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예산 현황

제3기 위원회의 예산과 각종 활동에 따른 사용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예산액*	사용액
2011	155백만원	145백만원
2012	154백만원	70백만원
2013	154백만원	17백만원(7. 17. 현재)

※ 연도별 예산액은 해당연도 전체 예산액임

※ 2013년 도서관정책관련 예산 : 55,077백만원

사 업 명	'13 예산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5,198
1) 도서관정책 개발(위원회 운영 포함)	(1,140)
2)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 개선	(10,001)
3) 해외작은도서관 조성(ODA)	(860)
4)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2,197)
5) 병영 독서활성화 지원	(1,000)
2.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994
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8,765
4.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기본경비	120
합 계	55,077백만원

2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성과

1) 위원회 활동

제3기 도서관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11년부터 ’1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와 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도서관 평가 등에 관한 계획수립·심의·조정 등 도서관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제3기 위원회는 출범에 따른 위원회 전체회의를 2011년 8월 11일에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3명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 19명이 참석하여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제3기 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소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조정하여 2011년 9월 19일에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제3기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하였다. 2011년 9월 30일에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차미경(공공도서관 소위원회 위원장), 곽동철(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위원장), 송기호(학교도서관 소위원회 위원장), 육근해(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위원장) 위원이 참석한 제1차 소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경과 및 운영방향,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2011년 11월 30일에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9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도서관법 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도서관계 현안 및 ‘2012 독서의 해’에 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다. 2011년 12월 말에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12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하였다.

2012년 들어 위원회는 4월 6일에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8명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2 독서의 해’ 추진사항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서관 운영 평가 관련 등에 관해 논의 및 자문을 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이후 처음으로 위촉직 위원 워크숍(1박 2일, 10월 19일부터 20일)을 파주출판단지 지지향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추진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토대로 제2차 종합계획(2014~2018) 수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기 위원회에 활동 중인 4개 소위원회 위원과 각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각 소위원회 별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워크숍 참석자 전체 회의에서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2012년 12월 말에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하였다.

2013년에는 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도 제3기 위원회 임기 완료(2013. 7. 31)까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1월 30일에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회의 및 관계부처에서 작성·취합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방향 기초자료를 검토하였다. 이후 도정단 내 TF 구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핵심 주제별 Focus Group Interview, 권역별 정책현안 토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 제도와 정책에 대한 도서관 학계, 현장 사서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였다. 위원회는 7월 23일 당연직을 포함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3기 도서관위원회 활동 및 성과와 함께 종합계획(안)을 보고하였다. 향후 종합계획은 제4기 도서관위원회에서 대국민 공청회, 위원회 최종 심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은 2013년 1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정비 방침 이후 도서관위원회의 폐지, 국무총리실 산하로의 이관 등의 논의를 거쳐 7월 초에 대통령 소속으로의 존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3기 도서관위원회는 2년 임기를 마치고 제4기 도서관위원회 체제로 위원회 업무를 인계하였다.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 시	참석자	안 건	회의결과(요약)
1차	'11. 8.11 (목)	- 위원장 등 위촉직 13명	- 3기 위원회 발족식 - 위촉직 위원 상견례	- 제1~2기 위원회 주요성과 소개 - 제3기 위원회 방향 논의

2.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성과

구분	일 시	참석자	안 건	회의결과(요약)
2차	'11.11.30 (금)	- 위원장 등 위촉직 9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서관계 현안 논의 - 위촉직 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견례	- 도서관법 개정 추진상황 보고 - 도서관계 현안 논의
3차	'11.12.22 ~ 12.27	- 당연직, 위촉직 24명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12년도 시행계획 심의(서면)	수정 가결
4차	'12. 4. 6 (금)	- 위원장 등 위촉직 8명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실적 보고 - 2012 독서의 해 추진상황 보고	- 종합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실적 논의 - 2012 독서의 해 추진상황 논의
5차	'13. 1. 3 ~ 1. 9	- 당연직, 위촉직 23명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 심의(서면)	수정 가결
6차	'13. 1.30 (목)	- 위원장 등 위촉직 9명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방향 검토 - 도서관위원회 위상 관련 현안 논의	- 국가도서관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 - 위원회 성과 자료 정리
7차	'13. 7.23 (화)	- 당연직, 위촉직	- 제3기 도서관위원회 활동 보고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보고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 현황>

일 시	참석자	안 건	회의결과(요약)
'12.10.19~ 10.20	- 위원장 등 위촉직 10명 - 소위원회 외부전문가 4명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방향 논의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및 제2차 종합계획 비전 제시 - 제2차 종합계획 기본추진일정(안) 수립

2) 소위원회 활동

제3기 소위원회는 관종별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소위원회별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소위원장 회의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여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에 반영하는 등 도서관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기적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소위원회별 회의는 관종별 모임 또는 이메일, 서면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소위원장 회의는 2011년 3회, 2012년 12회, 2013년 6회 등 매월 총 21회를 개최하여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	안 건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4회)	'11. 10.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기준 및 시행령 개정 ■ '사서직 총원방안' 등 소위원회 중점 과제 선정
	'12. 3~5월	■ 제5차 도서관정책포럼 추진 논의
	'12. 6~7월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준비 논의
	'12.12.10(월)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11 ~ '13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7회)	'11. 9. 7~16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11.10. 5~15	■ 외국학술지 구입 및 활용문제 등 현안문제 논의
	'11.12.10~20	■ 대학 및 전문도서관 현안 정리 및 대처방안 논의
	'12. 1.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련 정책포럼 준비 및 발표자 논의 ■ 도서관정책포럼 무산 및 향후 대책 논의
	'12. 4.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논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교육부 간 평가 협조 논의 ■ 한국도서관협회-대학/전문도서관 간 협력 논의
	'12. 5. 7~17	■ 제6차 도서관정책포럼 주제 설명 및 참가 독려
	'12.12.20(목)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구 분	개최일	안 건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12회)	'11.10. 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활동방안 협의 ■ 학교도서관진흥법개정(안) 자료검토
	'11.1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운영 방안 협의 ■ 도서관정책포럼 주제 의견 수렴
	'11.10.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책포럼 주제 확정 - 국민독서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11.10.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책포럼 발제자, 토론자 선정 논의
	'11.10.2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관심 영역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주제 협의
	'12. 1.1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중 학교도서관 관련 분야 검토
	'12. 1.2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전체 모임 일정 및 안건 협의
	'12. 2. 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방안 협의
	'12. 7. 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참여통계 현황 검토 ■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학교도서관현황' 자료 보고
	'12.12. 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13. 1.3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실무사 배치계획 현안 논의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등 관련 문건 발송
'13. 4.17(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토론자 협의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4월 26일) 안내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3회)	'11.11.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관련 논의 ■ 해외지역 도서제공 논의 등
	'12. 7.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도서관정책포럼 위한 의견 논의
	'12.12. 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	안 건
'11 ~ '13	1차	'11. 9.30(금) ■ 3기 위원회 활동방향(소위원회, 정책포럼 등)
	2차	'11.10.14(금) ■ 소위원회 현안 보고, 제4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3차	'11.11.11(금) ■ 소위원회 현안 보고, 도서관정책포럼 준비 논의
	4차	'12. 1.13(금) ■ 소위원회 현안 보고, 제5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5차	'12. 3.16(금) ■ 제6차 도서관정책포럼, 위촉직위원회의 논의
	6차	'12. 4. 6(금) ■ 제6차 도서관정책포럼 준비, 위촉직 위원 전체회의 결과 논의
	7차	'12. 5. 4(금) ■ 도서관계 현안 논의, 제6차 도서관정책포럼 점검
	8차	'12. 6. 8(금) ■ 도서관계 현안 논의, 제7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9차	'12. 7.13(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준비 논의 ■ 제8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10차	'12. 8.10(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제8차 도서관정책포럼 점검 및 논의 ■ 위촉직 위원 워크숍 검토
	11차	'12. 9. 7(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제8차 도서관정책포럼 점검 및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12차	'12. 9.14(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위촉직 위원 워크숍 준비 논의
	13차	'12.10. 5(금) ■ 위촉직 위원 워크숍 점검 및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14차	'12.11. 9(금) ■ 위촉직 위원 워크숍 결과 후속조치 논의
	15차	'12.12.14(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소위원회 간담회 결과 논의
	16차	'13. 1.18(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17차	'13. 2.22(금) ■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실무사 배치 관련 대응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18차	'13. 4. 5(금) ■ 도서관계 현안 논의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19차	'13. 5. 1(수)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20차	'13. 6.14(금)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21차	'13. 7.10(수) ■ 위원회 전체회의(당연직 포함) 개최 논의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3) 도서관정책 포럼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도서관계 및 일반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9일에 제1차 도서관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기 위원회에서는 제4차 포럼부터 9차 포럼까지 6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	내 용
4차	'11.12. 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송기호(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주제 및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독서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권은경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본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현실과 활성화 방안 ■ 시민(단체)이 바라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발전 방안 ■ 장애인학생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5차	'12. 2.1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장) - 주제 : 병원 및 교정시설 도서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는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교정시설 도서관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사서가 바라본 환자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 교정시설 도서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차	'12. 5. 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차미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제 :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 충원 방안 - 발제

구분	개최일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의 개선 방안 (박상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 현황 (곽철완 강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수급,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부천시식정보센터 사서직원 확보 사례 및 향후 과제
7차	'12. 7.1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곽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제 : 대학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및 추진방향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과 추진 방향 (노우진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 ■ 학교도서관과 교육정책 : 정책의제화 맥락에서「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등 입법전략을 중심으로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현장의 입장 ■ 학교도서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묻다 ■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 절차 및 추진 전략
8차	'12. 9.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장) - 주제 : 도서관정책 제안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서관정책 체계 발전 전략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도서관이 만드는 21세기 행복한 국가 (차미경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 교수·학습을 위한 만인의 학교도서관 ■ 도서관의 혁신-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영감, 파토스, 도서관

구분	개최일	내 용
9차	'13. 6.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광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제 : 미래 도서관 사서직의 역할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도서관 사서직의 역할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미래는 사서에게 달려있다 ■ 교육·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동반자, 사서 ■ 사서교사의 주제전문성과 교수자로서의 역할 활성화 방안 ■ 미래의 정보격차지수는 사서에게 달려있다

※ 도서관정책 포럼 자료집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lip.go.kr>) 자료실-위원회/기획단 정책자료 코너에서 확인 가능

3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1) 국제도서관연맹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활동

김봉희 위원장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개최된 “2011 세계도서관정보대회 (WLIC; World Library & Information Congress) ; 제77회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 Institutions) 연차총회”에 2011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기간 중 김봉희 위원장은 2011년 8월 18일에 개최된 “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Special Interest Group) 예비회의”에 참석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정보정책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 현황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봉희 위원장은 각국 도서관정보정책 담당 조직들이 국제적인 어젠다를 개발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도서관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도서관인들이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되돌리고, 도서관을 통한 미래의 발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2012 세계도서관정보대회 ; 제78회 국제도서관 연맹 연차총회”에 2012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참가하였고, 8월 14일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에 참가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는 2010년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도서관대회기간 중 김봉희 위원장이 엘렌 티세(Ellen Tise) 국제도서관연맹(IFLA)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모여 함께 고민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회의개설을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엘렌 티세 국제도서관연맹 회장도 동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에는 국제도서관연맹으로부터 2011년 세계도서관대회(WLIC) 기간 중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예비회의 개최 승인을 얻었고 2011년 2월부터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예비회의 개최를 위한 대외창구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 회의개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 개요>

1. 2011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예비회의 개요

- 일 시 : 2011.8.18(목) 13:45~15:45(2시간)
- 장 소 :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국제회의장(2011 WLIC 회의개최지)
- 후 원 : 국제도서관연맹 국립도서관분과(IFLA National Libraries Section)
- 내 용 : 동 특별관심그룹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성 논의, 국가의 도서관·정보 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등

2. 2012 제1차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 개요

- 일 시 : 2012.8.14(화) 13:45~15:45(2시간)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국제회의장(2012 WLIC 회의개최지)
- 후 원 : 국제도서관연맹 국립도서관분과(IFLA National Libraries Section)
- 내 용 :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 국가적 수준의 도서관 관련 법령, 프로젝트, 사례연구, 향후계획 등
 -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영향(사례연구)

2) 도서관과 관계기관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도서관위원회 김봉희 위원장은 국내 도서관 현장의 현황과 세계 도서관정보정책의 동향 파악, 국내외 도서관계와의 교류 폭 확대 및 상호 협력 도모를 위해 '11년 17회, '12년 37회, '13년 20회 등 총 74회에 걸쳐 도서관계 관련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단체)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 제3기 김봉희 위원장 활동 일지

월 일	활동 내용
'11. 8.11(목)	제3기 도서관위원회 위촉위원 상견례 및 간담회
'11. 8. 15~20	2011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푸에르토리코) -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예비회의 개최
'11. 9.16(금)	2011년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2011년 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심사 및 선정
'11. 9.22(목)	제17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참석
'11. 9.28(목)	3부(국회·법원·국립중앙도서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1.10.19~20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및 축사
'11.10.26(수)	2011 OAK(Open Access Korea) 회의 참석 및 축사
'11. 11. 2~3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 참석 및 축사
'11.11. 4(금)	한국점자도서관 '역사자료관' 개관식 참석
'11.11.15(화)	국립중앙도서관 '열두서고 열리다' 특별전시회 참석 및 축사
'11.11.18(금)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1.11.24(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대학도서관 정책담당부서 간담회
'11.11.29(화)	강릉 행복한모루 복합문화관, 강동초등학교 도서관 방문 및 간담회
'11.11.30(수)	도서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담회
'11.11.30(수)	법원도서관 '법원사 자료 전시회' 참석

3.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월 일	활동 내용
'11.11.30(수)	故 박병선 박사 국립현충원 안장식 참석
'11.12.19(월)	강화초등학교, 강화공공도서관 방문 및 간담회
'12. 1.10(화)	느티나무도서관, LG상남도서관, 이진아도서관 등 방문
'12. 1.18(수)	2012 도서관인 신년인사회 참석 및 축사
'12. 2. 2(목)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2. 2.27(월)	한국도서관협회 간담회
'12. 3. 9(금)	'2012 독서의 해' 선포식 참석
'12. 3.22(목)	서울 정독도서관, 파주 교하도서관, 파주 출판단지 방문
'12. 4.24(화)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2. 5.11(금)	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12. 5.16(수)	경남 창원도서관 방문 및 공공·학교도서관 담당자 간담회
'12. 6. 4(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면담
'12. 6. 8(금)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12. 6.13(수)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 면담
'12. 6.14(목)	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12. 6.15(금)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업무보고
'12. 6.19(화)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국립중앙도서관 간부 간담회
'12. 6.29(금)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간담회
'12. 7.17(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간담회
'12. 8.13~18	2012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핀란드) -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회의 참석
'12. 8.27(월)	제1차 미래도서관 정보화 정책 발굴 포럼 참석
'12. 9. 5(수)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장 간담회
'12. 9. 7(금)	2012년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2012년 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심사 및 선정

월 일	활동 내용
'12. 9.11(화)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간담회
'12. 9.12(수)	한국도서관협회 간담회
'12. 9.19(수)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2. 9.20(목)	파주 북소리 2012 및 파주 교하도서관 방문
'12. 9.21(금)	제18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참석
'12. 9.24(월)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 및 현판식 참석
'12.10.15(월)	2012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가자 간담회
'12.10.17~18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및 축사
'12.10.26(금)	서울도서관 개관식 참석 및 축사
'12.11.14(수)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2.11.15(목)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간담회
'12.11.29~30	제1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및 축사
'12.11.30(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방문 및 제주지역 사서 간담회
'12.12. 4(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간담회
'12.12.11(화)	서울도서관 간담회
'12.12.17(월)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장 간담회
'13. 1. 3(목)	국립중앙도서관 신임 사무관 간담회
'13. 1. 9(수)	국회도서관 전자정보제작과 간담회
'13. 1.21(월)	“사서가 말하는 사서” 기획 및 저자 간담회
'13. 1.24(목)	도서관계 원로 간담회
'13. 2. 7(목)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국립중앙도서관 간부 간담회
'13. 2. 8(금)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3. 2.19(화)	한국도서관협회 간담회
'13. 2.28(목)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장 간담회

월 일	활동 내용
'13. 2.28(목)	제64차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13. 3.29(금)	파주 물푸레도서관 개관식 참석 및 축사
'13. 3.29(금)	파주 도서관정책 담당 부서, 도서관 사서 간담회
'13. 4. 8(월)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아트 전시회 참석
'13. 4.22(월)	교육부 도서관정책 담당 부서 간담회
'13. 4.26(금)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13. 5. 3(금)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간담회
'13. 5. 9(목)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3. 5.22(수)	2013 디지털도서관 심포지엄 참석
'13. 6.14(금)	2013년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2013년 도서관운영평가 계획 및 지표(안) 논의
'13. 6.28(금)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13. 7. 3(수)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 도서관 및 관계기관(단체) 방문 시, 주요 논의 내용

기관명	주요 논의 내용
강릉 행복한모루 복합문화관 /강동초등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지역 학교도서관 중 사서교사 단 2명임. 사서교사 확충 필요 ■ 지방도시의 약점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확보 등 어려움 ■ 관리자 인식부족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어려움 ■ 권역별 사서교육이 가능한 사서연수원 설치 요망
강화초등학교 /강화군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도시 강화도의 특성상 건물 개축, 신설 어려움 ■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예산 동결. 지자체장 등 인식개선 요망 ■ 강화군 전체 사서 1명으로 인력 확보 필요
LG상남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문화의 장으로서 사립도서관의 역할 및 현황 파악 ■ 시각장애인 대상 휴대폰 'u-Library 책임어주는도서관'서비스 현황보고 (LG상남도서관)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현황 파악 및 격려

기관명	주요 논의 내용
정독도서관 /교하도서관 /파주 출판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필요 ■ 지역 대학도서관과 연계하는 상호대차 제도 활성화 ■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하여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 필요
창원도서관 /중앙여고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사서교사 배치기준 개정 필요 ■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운영 확대 추세 ■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잦은 전보로 전문 인력화 어려움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의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 도서관운영평가 시 지역안배 필요 ■ 야간개관 연장사업 관련 비정규직의 인건비 현실화 요망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실시로 도서관 시스템의 솔루션 구입 부담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책업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규정 재검토 ■ 중앙지원사업의 확대 ■ 제주지역 도서관 사서직원 부족, 행정직 도서관장 임명 문제 제기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지속
물푸레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구입비의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방안 검토 ■ 야간연장개관 운영시간 제한 지침 마련 및 시달 필요 ■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강화 검토 ■ 도서관 사서 법정 기준 현실화 필요 ■ 사서 대상 정부 포상 확대 필요 ■ 사서직 공무원 자격증 수당 인상 필요 ■ 한국도서관자동화시스템(KOLAS) 개선 건의사항 반영 필요

참 고 자 료

1. 위원회 및 소위원장 회의 결과(요약)
2. 도서관정책 포럼 개요와 논의 내용
3.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인사말 및 축사 모음
4. 사진으로 보는 제3기 위원회 활동

<참고자료 1>

위원회 및 소위원장 회의 결과(요약)

I. 제1차 위원회 회의 (2011. 8. 11)

1. 개요

- 일 시 : '11.8.11(목), 11:00~12:00
- 안 건 : 제3기 위원회 출범 위촉직 위원 전체회의
- 참 석 : 12명(위촉직)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고영은, 곽동철, 남태우, 박영숙, 박지향, 송기호, 육근해, 이은철, 임호균, 정성희, 차미경 위원

2. 주요 내용

- 위촉위원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개
 - 위원회 연혁, 법적근거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현황
 - 위원회에서 도서관정책에 대한 좋은 안을 도출해내고, 각 부처 정책의 조정, 권고 등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 소개
- 제2기 위원회 주요성과 및 제3기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관종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만료에 따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방향 토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TF구성 필요
- 도서관 정책포럼의 지속적 개최 필요
- 위원회 활동 홍보와 도서관계 문제에 대해 여론화 추진
- 도서관의 담당 부처가 달라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서관 정책조정 등 위원회 활동이 더욱 중요함
- 교과부, 국방부, 법무부 등 도서관 담당 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개최 시부처별 도서관담당자를 참석시키도록 함

II. 제2차 위원회 회의 (2011. 11. 30)

1. 개요

- 일 시 : '11.11.30(수), 11:40~13:30
- 안 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업무보고 및 도서관계 정책현안 논의
- 참 석 : 10명(위촉직 9, 당연직 1)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곽동철, 남태우, 박지향, 송기호, 육근해, 이은철, 정성희, 차미경 위원
 - 당연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주요 내용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일반현황 및 도서관법개정 진행사항 보고
- 제3기 출범이후 소위원회 구성 및 현황보고
- 도서관정책포럼의 격월제 개최결정
 - 12월 개최 예정인 도서관포럼 주제인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충원에 대한 토론

- 도서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노력
- 박물관과 달리 도서관은 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다양화 되어 있어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필요
- ‘2012 독서의 해’사업 홍보를 위해 위원들이 홍보매체에 기고추진
- 독서동아리를 활용, 독서토론 활성화 논의
- 문화시설의 복합문화공간화 추세에 있으므로, 도서관·박물관이 서로 상생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문체부장관)
- 강릉‘행복한 모루’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 모델이 될 수 있음
- 독서통계 및 지표 등 도서관 관련 각종 통계자료가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 검토
- 도서관 정책방향 제기 및 도서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위원회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언론에 칼럼 등 기고방안 논의

III. 제3차 위원회 회의

1. 개요

-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부사정상 서면심의로 회의 대체
- 심의안건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2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심사위원 : 24명(위촉직 14, 당연직 10)
- 심의 결과 : 수정 가결

2. 심의의견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전체	전라남도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2 년도 시행계획 미제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2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2012년도 시행 계획 수립·제출 필요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2) 2012년도 주요 추진내용 ○ 세부 추진계획 - 어린이 담당사서 실무중심 계속교육 강화(연중) · 사이버교육 운영(7개 과 정), 어린이서비스 실무중 심 워크숍 개최(3~11월)	○ '어린이 담당사서 실무중심 계속교육 강화(연중)'에 아 래 내용 추가 필요 ·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를 위한 공공도서관 어린이 담당 사서와 사서교사의 합동직무연수 실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2) 2012년도 주요 추진내용 ○ 세부 추진계획 -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를 통 해 담당인력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미 배치학교에는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교 육청에 요청	○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 내 용으로 변경 필요 -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를 통해 단위 학교의 배치 희 망 인력 유형을 파악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목적에 맞는 인력배치를 유도함 - 자격유형별 직무분석을 통 해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내 용과 운영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학생수에 따른 적절한 사 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마련함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IV. 제4차 위원회 회의 (2012. 4. 6)

1. 개요

- 일 시 : '12. 4. 6(금), 11:00~13:00
- 안 건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실적 보고
 - 「2012 독서의 해」 추진사항 보고
 - 도서관계 정책현안 논의 등
- 참 석 : 8명(위촉직 8)
 - 김봉희 위원장, 곽동철, 남태우, 박영숙, 송기호, 육근해, 이은철, 차미경 위원

2. 주요 내용

- 도서관 운영 평가 검토 및 논의
 - 도서관 운영 평가는 통계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이전 평가에 관한 결과를 차후 반영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실적 보고
 - 종합계획 시행실적이 성과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향후 거시적 검토 필요
- 2012년 독서의 해 추진상황 보고 및 논의
 - 2012년 독서의 해 사업추진은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협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정단의 조정역할 당부
- 도서관협회에 사서자격제도 위원회가 구성되었음. 동 위원회에서 사서자격 제도에 대한 조사자료를 공유,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어르신을 위한 대활자본 책 배포처를 확대, 농어촌 지역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장애인, 이주민, 환자 등 눈에 보이는 소외계층에 치중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도정단 소속 사서공무원의 수가 늘리거나, 도정단 파견사서의 업무를 조정 관종별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V. 제5차 위원회 회의

1. 개 요

-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부사정상 서면심의로 회의 대체
- 심의안건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3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심사위원 : 24명(위촉직 14, 당연직 10)
- 심의 결과 : 수정 가결

2. 심의의견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사서 교사·실기교사·사서등) 확보 -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정원과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 확보 및 전담인력 확대 추진 - 확보된 인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배정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에 아래 내용 추가 필요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5)에서 정한 사서교사의 배정기준의 조정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 중학교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사서) 배치 - 사서자격증(사서교사, 1·2급 정사서, 준사서 등)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지도 - 정규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지정 운영,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인력 등을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세 번째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필요 - 사서교사 등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지정 운영,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인력 등을 적극 활용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사서 실무원) 110명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안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필요 - 학교도서관 실무인력(보조직원) 110명 배치 또는 -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 110명 배치

VI. 제6차 위원회 회의 (2013. 1. 30)

1. 개요

- 일 시 : '13. 1. 30(목), 12:00~14:00
- 안 건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방향 기초자료 검토
 - 도서관위원회 위상 관련 논의 등

○ 참 석 : 9명(위촉직 9)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강은주, 곽동철, 남태우, 송기호, 육근해, 이은철, 이지연, 차미경 위원

2. 주요 논의내용

-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국가도서관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5개년 동안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강조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등 현안 문제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국회의 「도서관법」 법안심사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성과와 존치 필요성 등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준비해 두어야 함

VII. 제7차 위원회 회의 (2013. 7. 23)

1. 개요

- 일 시 : '13. 7. 23(화), 11:00~14:00
- 안 건
 -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
- 참 석 : 13명(위촉직 10, 당연직 3)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곽동철, 남태우, 박영숙, 박지향, 송기호, 육근해, 이지연, 임호균, 차미경 위원
 - 당연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방부장관(대참), 교육부장관(대참)

2. 주요 논의내용

- 현안사항 보고
 - 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현행법과 동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될 예정
 -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화 문제는 도서관계가 한목소리를 내서 현행대로 유지
- 제3기 도서관위원회 활동 보고
 - 제3기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도서관계 및 관련단체 등에 배포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함. 우리나라 국민 소득 등을 감안할 때 2018년까지 1인당 장서수 2권 등은 너무 약함
 - 국민 1인당 장서수도 못지않게 어떤 장서를 서비스할 것인가도 중요하며, 2018년까지 도서구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도 포함되어야 함
 - 종합계획은 미래 지향적 도서관 서비스 개선 계획인데 독서부분이 너무 강조되고 있음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 학교도서관 장학체계 부재, 전문인력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확대 개편하여 국가단위의 지식정보 격차해소 센터가 되어야 시·도 자치단체의 정보격차서비스 센터와 연계가 가능함
 - 지식정보 격차해소 관련하여 공공대학·학교도서관 분야에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환자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지역대표도서관과 공동보존도서관(서고)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그 주체를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학도서관까지 확대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이 바람직할 수 있음

VIII. 위촉직 위원 워크숍

1. 개 요

가. 목적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방향 논의

나. 일정

- 일시 : 2012. 10. 19.(금) ~ 20.(토) / 1박 2일
- 장소 : 게스트하우스 지지향(파주 출판단지 내)
- 워크숍 운영 : 각 소위원회 별 회의 후 전체 종합 토론
- 참석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

구 분	도서관정보정책위원	외부전문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김봉희 위원장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차미경 소위원장 - 박영숙 위원 - 임호균 위원	- 윤명희 파주시 도서관정책팀장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곽동철 소위원장 - 박지향 위원	- 김창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송기호 소위원장	- 이상훈 인천부내초등학교 사서교사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육근해 소위원장 - 남태우 위원 - 정성희 위원	- 안찬수 책임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2. 주요 논의결과

가. 향후 기본 추진일정(안)

주요 내용	시 기
○ OECD 34개국 도서관지표 및 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012. 12월까지
○ 위원회 당연직 10개 부처 및 관종별 도서관협의회의 향후 5개년 발전계획 수집	2012. 12월까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별 논의 및 도서관정책포럼 개최	2013. 1월까지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및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착수보고 및 중간발표회 개최 - 연구용역기관에서 관종별 의견 수렴	2013. 4월까지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독회 및 검토	2013. 5월까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전 국민 공청회 개최, 문제점 수렴 및 최종 계획(안) 마련	2013. 6월까지
○ 제4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설명 및 인계	2013. 7월까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최종 검토	제4기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소관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나. 소위원회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 추진 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각 단위 도서관의 사명, 비전, 전략 등 발전방향 수립 시 관종별 협의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을 각 단위에서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목표와 성과를 사회적 언어로 표현하여 대 국민 메시지로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로 전달되기보다 중앙, 지방, 각 단위에서 계획 및 집행하는 것이 도서관 발전 방향과 취지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각 단위의 선택과 집중을 기대할 수 있음
 -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는 시기부터 각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주고 현장을 존중 및 자극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현장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 동기 유발, 건강한 긴장, 사회적 책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도서관 양적 증가에 따른 거리상 접근성 향상을 물리적, 지적, 경제적, 정서적(심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등 질적인 개선으로의 변화를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공공도서관의 중점 사업은 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협의회 및 현장 사서들의 모임 등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일선 도서관 및 현장 사서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며, 각 단위별 도서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종합계획은 ‘가치’를 담은 표현으로, 나열식/병렬식을 지양하고 외부 사회와의 소통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함
- 예를 들어 ‘인력’문제 해결이 집중 과제라면, 이를 대국민 가치로 표현하고 전 관중에서 전략 개발
- ※ 1차 종합계획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소통과정 필요

○ 과제 및 전략 제안

- 공공도서관 공간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
 - 커뮤니티, 관계, 만남, 교류, 협동(Collaboration) 등 커뮤니티의 통합을 위한 공간 구성 재검토
 - 도서관 면적을 줄이더라도 공간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여 유효면적 비중을 강화하면 접근성 강화 가능
 - 물리적 도서관이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

- 공공도서관의 비전 키워드
 - 공동체, 공공의 공간에서 삶에 대한 신뢰 회복(확 열린 공공성 강조)
 - 긍정적인 기운
 - 공동체의 일원
 - 커뮤니티의 소통

- 소외 계층 outreach, 도서관 카드 제공
 - Books are for Use
 - 전 국민 도서관카드 갖기 운동
 - 다양성과 자율성 실현 지원

-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 정리
 - 작은도서관 정책 모순(민간 중심, 사립임에도 공립에서 지원)
 - 2006년 작은도서관 진흥 이전과 이후 작은도서관 성격이 바뀜

- 도서관 기준 현실화 및 도서관 관련 현안 검토
 - 단위도서관의 특징과 자율성 인정
 - 인구 대비 면적, 인구 대비 장서 기준 검토(인구밀도 고려 등)
 - 신설 도서관의 면적 및 1인당 면적의 확대
 - 보존서고는 중앙관이 감당
 - 공부방 면적 축소(2000년 이후 개관 도서관의 1/3은 공부방 없음. 주민들의 공부방 요구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필요)
 - 건립 당시에는 예산 중심, 건립 후에는 운영 고민에 대한 문제 해결
 - 거리, 인구 대비 도서관 수,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 개념 극복
 - 평생학습의 방식 변화
 - 자체 별 차등 폐지(유동인구 증가 환경)
 - 공부방 등 도서관 기능이 아닌 기능은 별도 건물로 건축하고,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면 공용면적 대폭 축소 가능
 - 아파트 공용면적을 독서실로 활용하도록 권고
 - 도서관 신축 요구 시 웹 시스템 구축으로 신축 규모 결정
 - 2013년부터 노후 20년 이상 도서관의 리모델링 예산 지원(광특예산)
 - 농어촌의 도서관 기준을 1)거리, 2)행정구역, 3)봉사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option 제공
 - 법적인 시설 위주의(예를 들어 복합건물 신축 시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체육관 다음 순위인 도서관은 고층인 6~7층으로 이동) 건축 현실에 따른 도서관 건축 및 시설 가이드 필요
 - 공공도서관장의 권한과 지위 검토(직인, 공모제 등)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제1차 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부문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있음. 법 제정이 2009년 초에 문화부 반대로 무산되어 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없었음
 - 추가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 발생
 - 각종 지표의 정량화를 위한 기준 설정 연기

 - 제2차 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국공립/사립/전문대학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 대학도서관 평가-지원체제 확립,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위상 제고, 학교도서관 연계 도서관전담부서 설치 등 포함)

 - 기본적으로 제1차 계획이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계획의 내용을 상향 조정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추진
 -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의 다변화(지역 학교도서관 지원 등 포함)
 - 대학별 대학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센터화 추진(대학 자체 생산 지식정보 자원 통합 수집 관리)
 - 대학도서관장 또는 사서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에 연구자로서 참여방안 마련
- ※ 대학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중임(KERIS 주관)

- 전문도서관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도서관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필요
 - 향후 워크숍부터는 전문도서관협의회장 등 참석 정례화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학교도서관 부문에 대한 제1차 종합계획은 잘 설정되어 있으나 학교도서관 현장에 사서교사 배치가 없어 계획을 실천해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성과가 전무한 상황임. 상징적인 문구들이 많아 기본적으로는 1차 종합계획의 계승 및 발전이 필요함. 자격유형별 직무분석, 자격유형별 배치기준 마련 등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학교도서관의 비전 설정 기본 방향
 -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도서관
 -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고, 학부모가 든든하게 여기는 학교도서관
 - 교실의 이미지보다는 가정(집)과 같이 편안하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학교 도서관 지향

- 학교도서관의 핵심 추진 전략 설정 방향
 - 경영활성화 기반 조성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 학교도서관 진흥재단 및 지원시스템 도입
 - 학교 유형별 도서관 기준 마련

- 사서교사의 전문성 강화
 - 자격유형별 직무분석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교육 역량 강화
 -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독서교육 실시
 - 평생 필독도서 개발

-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 정보접근성 및 연계를 위한 DLS 개편
 -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강화

- 추진전략 설정 방법에 대한 의견
 - 교과부, 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학교도서관협의회 등 연계
 - 교과부, 교육청의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과의 연계
 - 도서관 전체 비전 확정 후 관종별 핵심가치와 전략 개발로 도서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각 전략별로 실천 책임기관(자)명시- 연간 추진실적, 평가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제1차 종합계획의 정보격차해소 부문은 공공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은 소외된 측면이 있음. 지식정보 격차해소와 관련한 발전계획은 모든 관중에 다 포함되어야 함

- 비전 : 모두가 행복한 문화 복지 구현(사회통합)

- 추진전략
 -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전 국민의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세 신설(외국 사례 벤치마킹)로 문화 복지 구현

- 주요정책과제 :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전 국민의 도서관 서비스
 - 독서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병영, 병원,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확대
 - 접근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세부과제
 - 독서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병영, 병원,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확대
 - 독서장애인 대상 범주 확대 및 심화
 - 정책 일원화 및 서비스 지원강화(흩어져 있는 정책의 일원화)
 - 서비스 기준 개발
 - 장애인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병영, 병원, 교도소도서관, 선상 도서관 등 설치 확대

- 접근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독서기기 개발 및 보급, 활용교육
 - 구연동화 전문가 양성
 - 문화교육강사 전문가 양성
 - 자료 및 서비스 실시 강화
 - 웹접근성 강화
 -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강화
 - 문해교육 강화(한국어, 컴퓨터)
 - 정보활용교육(콘텐츠 활용교육, 데이터 활용교육) 강화

- 지식정보소외계층 도서관
 - 실버
 - 장애인
 - 다문화
 - 농산어촌, 취약계층
 - 병영
 - 병원
 - 교도소
 - 선상도서관

- 주요정책과제 : 도서관세 신설(외국 사례 벤치마킹)
 - 도서관세 신설(각종 기금에서 일정 % 도서관세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포함)

- 독서세(reading tax) 신설(중하위권의 시민이 책을 구입할 때 연말정산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
- 특수자료 출판을 위한 세제 혜택

다. 기타 주요 논의 및 제안 내용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부문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후 계속사업 / 중지사업 / 신규사업 등의 구분이 필요함

○ 연도별 시행계획 부문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자료가 필요함
-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미제출 기관에 대한 벌칙 부여제도화가 필요함

○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부문

- 제1차 종합계획의 틀을 유지하여 제2차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전체 틀을 새롭게 하여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함
- 제2차 계획 수립시 국가도서관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제2차 계획에서 5개년 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관종별 도서관의 발전상황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며, 도서관발전 방향에 대한 도달 시점도 다름. 도서관 관종 간의 연계를 통한 공동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에 대한 관종별 현장 실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사서역량 강화방안, 도서관정책 일원화 등 공통 영역은 중앙에서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1차 종합계획 기간은 도서관의 확충기로 양적 증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2차 종합계획에서는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예를 들면, 각 서비스의 대상 범위 확대, 세부계획 심화, 인력문제(인력 확충 및 재교육 등) 해결 계획,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일원화 문제 등임
- 2차 종합계획을 만든 상태에서 하달/시행이 아닌 여러 참여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약 10여 군데의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음. 2차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발전계획의 참고도 필요함
- 1차 종합계획이 각 관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측면을 2차 종합계획에서는 극복해야 하며 사회적 공공성 가치가 계획에 포함되어 전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사항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10개의 주요부처 장관이 당연직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기관의 적극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임
- 향후 워크숍에 개최 시에는 관종별 도서관협의회 회장의 참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X.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2011. 9. 19.)

- 제3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 역할(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도서관발전 대안제시(포럼 개최 등)
 - 제3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위 원	소위원회 위원장
공공도서관 소위원회(3명)	박영숙, 임호균, 차미경	차미경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3명)	곽동철, 박지향, 이은철	곽동철
학교도서관 소위원회(4명)	강은주, 고영은, 송기호, 이지연	송기호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3명)	남태우, 육근해, 정성희	육근해

- 제3기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 : 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제14조)
 - 소위원장 모임(월 1회 계획)
 - 참석 : 위원장, 각 소위 위원장, 간사(회의록 작성)
 - ※ 안건에 따라서는 관련 위원 참석(위원장 요청)

· 소위원회 안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

☞ 『위원회 운영세칙』 소위원회 관련 규정(제12조~제14조)

제1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④소위원회의 종류 및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개최)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4조(결과보고) 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기 소위원회 구성 현황(위촉직 위원 대상 4개 분과로 구성)

- 법·제도개선 소위,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도서관협력 소위, 지식정보 격차 해소 소위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1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1. 9. 30.(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소위원회 구성 경과 및 운영방향
 - 관종별 소위원회 구성 과정 설명
 - 총괄 모임은 소위원장 모임으로 함
 - 소위원장 모임 월1회 예정

- 총괄모임 시 사안에 따라 소위원장 이외 위원도 함께 참석
- 사안에 따라 각 부처 도서관 관련 실무자도 포함하여 회의 운영

2. 포럼 개최

- 도서관 현안에 대한 사서들의 공개적 의견 교환의 장
- 각 소위원회별 모임에서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 후 포럼 주제는 소위원장 모임에서 결정
- 11월 말 제1차 포럼 개최 예정
- 10월 11일까지 소위원회 별 의견 취합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검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요
- 주기 및 내용에 대하여 소위원장 모임에서 검토 필요

4. 기타

- IFLA 특별관심그룹에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정책과제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여 추진
- 각 소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필요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추진사업을 위원회 위원과 공유 필요

제2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1. 10. 14.(금) 12:00
- 참석인원(4명) : 위원장, 소위원장(3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소위원회별 현안사항 및 포럼주제 관련 논의

◎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현안사항 논의

-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안 개정 및 기준안 준수 유도 방안 정리
- 공공도서관 사서 충원 방안
- 복합시설 일부로 공공도서관 건립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개발
- 행정체계 이분화의 문제점 개선
- 작은도서관 지원체계 개선

○ 포럼 주제(안) 논의

- 1) 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 2) 사서직 및 사서교육 개선 방안

◎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현안보고는 소위원장 불참으로 생략

○ 포럼주제(안) : “저작권과 대학도서관 서비스”(메일 통보)

- 도서관대회 워크숍 주제임. 결과에 따라 향후 저작권 관련 논의 방향 결정

●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포럼주제(안) : 국민 독서 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포럼주제(안)

- 1) 교도소 도서관과 병원도서관 현황과 미래 방향
- 2) 도서관에서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2. 제1차 정책포럼 결정사항

- 일시 : 12월 2일 잠정 결정
 - 정책포럼은 두 달에 한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
- 주제 : “국민 독서 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안)”
- 형식 : 토론자 3인, 소요시간 2시간 예상
- 사회 : 송기호 학교도서관 소위원장
- 섭외 : 학교도서관 소위원장이 추천, 도정단 위원회담당자가 섭외

제3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1. 11. 11.(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4차 정책포럼 준비사항 점검

○ 주요내용

- 발제 : 국민독서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 토론 1 : 학부모가 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활성화 방안
- 토론 2 : 시민(단체)이 바라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발전 방안
- 토론 3 : 장애인학생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2. 소위원회별 현안

1)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수업목적이용 저작물 보상금제도, 도서관 소장 영상저작물사용료 징수, 도서대여권 신설 등 현안

2)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공공도서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은 늘어났으나 ‘사서직 충원방안’ 문제
-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임
- 충북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청 내에 사무국 설치 후 인원 1인, 자료실 공간 확보 등 업무 수행하기로 잠정적 합의
- 경기도는 출판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장기적 계획 중이며 운영방안 등은 미정

3)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포럼 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 사서교사의 필요성 강조
- 학교도서관 대출반납 이외 학생상담 강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방향 제시 필요

4)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예정
- 저작권 또는 공공도서관 분야와 연계하여 6차 또는 7차 포럼의 주제 선정 하겠음
- 12월 2일 포럼 전에 모임 예정

3. 제5차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 논의사항

- 일시 : 2012년 2월 초 예정
- 주제 : ‘저작권법과 도서관서비스’
- 담당소위원회 :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1. 13.(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5차 도서관 정책포럼 논의

- 주제 : 대학교육과 저작권 문제, 그리고 보상금제도
- 발제
 - 주제발표 1 : 대학과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개선방향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 주제발표 2 : 대학교육에서의 저작물 활용방안

이종경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1) 도서관보상금과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입장
-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시행방향

○ 논의사항

- 주제발표 2인과 토론 2인으로 초안을 변경함
- 참석자들의 현장 토론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 시간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

2. 소위원회별 현안 및 회의결과 보고

○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2012. 1. 17(화) 14:00 교하도서관(경기 파주시)에서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개관식 개최(노벨문학상 전시실 개관)

○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2012년 2월 9일 예정.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 사용 요청
- 도정단 연구용역조사에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수요조사 포함 요망. 자격, 유형, 양성방안, 기초데이터 등 새로 조사해야 함

○ 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2011. 11. 29 회의 실시)

- 향후 교도소, 병원 도서관에 대한 포럼 별도 추진 필요

제5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3. 16.(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6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제6차 포럼은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날짜는 5월 4일(금)로 예정
- 제7차 포럼은 7월, 제8차 포럼은 9월에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

2. 위원장의 각 도서관 관련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추진 논의

3.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부임으로 위촉직 위원과 만남의 자리 추진 논의

- 예정일 : 4월 6일 금요일 오찬

제6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4. 6.(금) 15: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6차 정책포럼 준비사항

○ 주 제 : 공공도서관의 인력 확충

○ 발제자(2명)

- 광철완 교수(강남대 교수, 포럼 문화와도서관 이사)

- 조성호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토론자 선정 중임.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인력이 증가된 지자체 사례(부천, 청주, 경기도 등)를 참고하여 인력 확보 담당 책임자를 토론자로 섭외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임

2. 위촉직 위원 전체 회의 결과

○ 위촉직 위원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도서관발전종합시행계획 실적보고와 독서의해 업무보고 논의

3. 향후 일정 검토

○ 제7차 도서관정책포럼은 대학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을 주제로 개최 예정

○ 8차 포럼은 9월, 도서관계 전반적인 제도개선 관련 포럼으로 시행령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포럼 실시 예정

○ 제7차 소위원장 회의는 5월 4일 12시 개최, 오후 3시 포럼 참석

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

○ 제12조 2항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에서 ‘사서직원’을 ‘사서’로 변경하여 7월부터 시행

- 교육법상 교원과 직원은 구분됨. 교원은 ‘교육시키는 사람’, 직원은 ‘교원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사서직원은 교원을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되었음. 법 개정에 따라 사서의 지위와 역할 확대 가능

제7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5. 4.(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6차 정책포럼 최종 점검은 원안대로 추진함

- 일 시/장소 : 5월 4일(금) 15:00 ~ 18: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제 :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 충원 방안
- 발제자(2명)
 - 곽철완 교수(강남대 교수, 포럼 문화와도서관 이사)
 - 박상우 위원(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3명)
 - 임호균(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이재희(부천시 북부도서관팀장)

2. 도서관계 현안 논의

- 대학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은 19대 의회에서 다시 추진
- 4. 27(금) 개최된 서울시 교육청 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 : 차미경 위원
 - 10개 분과 사서 20명씩 모여 도서관 인력, 협력, 주5일제 수업 대비 토요 서비스 등 현안에 대하여 집중 토의
 - 교육감은 책 읽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함
- 위원장, 장관/지자체장 등 도서관계 관련 각계 단체장 면담 계획
 - 향후 문화부장관 등 관련 단체장 적극 면담 추진하겠음
 - 대학도서관 관종별 협의회장단 간담회 6월 중 주최

3. 향후 일정 논의

- 7월 제7차 도서관정책포럼 : 대학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 합동 결정(7월 13일)
- 8차 포럼은 9월, 도서관계 전반적인 제도개선 관련 포럼으로 시행령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포럼 실시 예정

제8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6. 8.(금) 12:00
- 참석인원(6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5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7차 도서관 정책포럼 추진현황

○ 일시/장소 : 2012년 7월 13일(금) 15:00~18: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제 : 대학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및 추진 방향

○ 발제

· 주제발표 1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한 절차 및 추진 전략

노우진/국회도서관 전자정보개발과장(정두언 의원실 추천)

· 주제발표 2 : 교육정책면에서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방향

엄기형/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현장의 입장

(2)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대한 학교도서관 현장의 입장

(3) 도서관 관련 법규 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2. 도서관계 현안 논의

○ 제6차 도서관정책 포럼 결과 논의

- 제6차 도서관정책 포럼은 주요 언론에 홍보되었으며 200여명이 넘는 인원 참석, 높은 관심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됨

- 행정학계 등 사서직 공무원 조직과 인력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학회와 문헌 정보학계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느낀 포럼이었음

-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제7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 9월 제8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도서관법, 시행령, 관련 진흥법 등 검토 필요성
- 포럼 주최를 위원회, 학회, 관련 협의회 함께 할지, 주관/후원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함

제9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7. 13.(금) 11: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준비 논의
2. 소위원회별 제3기 위원회 상반기 활동 정리
 - 2011. 8월 ~ 2012. 7월까지의 3기 위원회 상반기 활동정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별 활동상황 정리하여 제출
3. 향후 일정 논의
 - 9월 제8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일시 : 2012. 9. 14(금)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제 : 도서관 정책 제안 “사회 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가제)
 - 주제발표

- 가. 국가 도서관 정책 체계 -교육부, 문화부 정책제도 현황, 국가도서관 운영 등
- 나. 관종별 도서관정책(차미경 위원 발표)

제10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8. 10.(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 1. 제8차 도서관정책포럼 점검 및 논의
 - 포럼 성격 변경
 - 정부 영역에서 도서관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조직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분위기를 감안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최를 제 도서관 관련 민간단체 영역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변경함
 - 포럼 추진 상세내역
 - 일시/장소 : 2012. 9. 14.(금) 14:00 ~ 17:00,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제 : 도서관정책제안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
 - 주제발표
 - 국가도서관정책 체계 - 광동철 위원(청주대학교 교수·도서관정보정책위원)
 - 관종별 도서관정책 - 차미경 위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서관정보정책위원)

- 토론
 - 토론은 주제 구분 없이 5명의 토론자를 정함
 - 토론자는 안찬수 책읽는사회 사무처장, 송기호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수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김기태 서울대학교 사무관, 강인해 독서신문 기사를 우선적으로 섭외하기로 함
- 기타사항
 - 포럼은 도서관정책에 대한 도서관계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도서관계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함
 - 주최, 주관, 후원 및 토론자를 섭외하는 과정에 소위원장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 참여함
 - 행사 자료 등에 한국문헌정보학회 등 6개 학회와 모든 후원 조직의 명칭을 나열함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해 각 소위원회에서 점검 및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함
- 심도 있는 소위원회별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위촉직 위원 전체 워크숍(1박 2일) 추진을 검토함

3. 향후 일정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논의
 - 9차 포럼은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협력과 상생문제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며 시기는 다음 소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함

제11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9. 7.(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도서관정책 포럼 점검 및 논의

○ 포럼 추진 조정 사항

- 주최 및 주관을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 공동으로 변경함

○ 포럼 홍보

- 도서관 관중별 협의회에 대한 홍보는 관련 소위원장 및 한국문헌정보학회의 공문(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으로 처리함
- 도서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토론자에게 설명 및 요청함
- 주제발표 및 토론 자료를 모두 게재한 포럼 자료집을 제작함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2차 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은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마지막 기본 임무임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해 각 소위원회 단위에서 점검 및 평가를 실시

- 주요 외국의 국가도서관정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12 IFLA NILP SIG 회의 발표자료를 제공하여 공유함

3. 향후 일정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협력과 상생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는 도서관계, 출판계 각 1인으로 하고 토론은 어린이/청소년 등 분야별로 구분함
 - 출판계의 주요 두 단체(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두 단체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출판계의 발제자와 토론자 결정이 필요함
 - 고영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 등 출판계 원로 인사의 추천을 받아 출판계 발제자를 정하고 도서관계의 발제자는 결정된 출판계 발제자와 유사한 경력의 소유자로 함. 발제자와 토론자는 제12차 소위원장회의에서 결정함

제12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9. 14.(금) 20: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11차 소위원장 회의(9. 7) 결과 중 변경

- 현재 출판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협력과 상생문제를 주제로 하는 도서관정책 포럼은 무기한 연기함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 구체화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2차 계획에 대한 기본 틀 마련을 위하여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체 1박 2일 워크숍을 10. 19(금) ~ 20(토)에 추진함(장소 :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호텔 우선 고려)
- 회의자료는 제1차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책자로 하며 워크숍은 각 소위원회 별로 회의를 진행한 후 워크숍 참석자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 및 논의하고 향후 단계적 추진 일정을 수립함
- 워크숍에 각 소위원회 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며 외부전문가에게도 회의 수당을 지급함
- 향후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을 주제로 도서관정책 포럼을 개최함(출판 관련 포럼은 종합계획 관련 포럼 이후 추진)

제13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10. 5.(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위원회 위촉직 위원 워크숍 점검 및 논의

-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
 - 행사명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워크숍
 - 일시 : 2012년 10월 19일(금) 오후 3시 ~ 20일(토) 오후 1시 / 1박 2일

- 장소 : 파주출판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호텔 지지향
- 주제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 관련 논의
- 워크숍 운영 : 각 소위원회 별 회의 후 전체 종합 토론
- 위촉직위원에 대한 워크숍 참석 사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워크숍에 참석할 소위원회 별 추천 외부전문가와 도서관정보정책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위원 : 김봉희 위원장 및 강은주, 곽동철, 남태우, 박영숙, 박지향, 송기호, 육근해, 임호균, 정성희, 차미경 위원(11명)
 - ※ 불참 위원 현황 : 고영은, 이은철, 이지연 위원
 - 외부 전문가(4명)
 -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김창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윤명희 파주시 도서관정책팀 팀장
 -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이상훈 인천부내초등학교 사서교사
 -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5명)
 - 위원회 담당 : 도서관정책과 안현태 사무관, 차경례 주무관
 - 종합계획 담당 : 도서관정책과 차성종 사무관, 이용미 주무관
 - 도서관정책과 한재구 사무관
- 워크숍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워크숍 장소인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도착시간을 19일(금) 오후 3시까지로 하고 개별 및 단체 이동으로 하며, 워크숍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동 방법에 대한 조사 실시를 통해 단체 이동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함
 - 도서관발전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은 종합계획 담당이 워크숍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제1차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핵심사항을

10~15분 발표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발표자료는 현장에서 별도로 배부함

- 워크숍 회의자료는 제1차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책자를 각 4부씩 준비하여 소위원회 별로 1부씩 배부함
- 지지향 숙소 및 세미나실 예약, 식당(만찬, 조찬, 오찬) 예약, 워크숍 일정 공지, 숙소 배정, 회의수당 지급 등 워크숍 준비에 만전을 기함
- 워크숍에서 계획했던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추후 위촉직 위원과 이번 워크숍에 참석했던 외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위원회 별 모임(워크숍 등)을 추진함

2. 향후 일정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은 대통령 선거 등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3년 1월 25일 정도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함
 - 제10차 도서관정책 포럼은 2012년 3월에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협력과 상생문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것을 잠정 결정함

제14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11. 9.(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위원회 위촉직 위원 워크숍 결과 후속조치 논의 결과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 관련하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및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으로 내부위원회를 구성(2012. 11. 9. 첫 회의)하여 우선 논의 중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장 회의와 내부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 담당은 소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내부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소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함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내부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 즉시 위원장 및 소위원장에게 메일 송부하며, 또한 도서관 관중별협의회의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수집하여 위원장 및 소위원장에게 메일 송부함

- 12월 제15차 소위원장회의 이전에 소위원회별로 워크숍 또는 종합계획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소위원회 워크숍 시 연락, 장소 및 예산을 지원함

2. 향후 일정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12월 제15차 소위원장 회의에서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의 소위원회별 발표자와 토론자를 결정함

제15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12. 14.(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논의 결과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회의 진행사항 보고 및 논의
 - 내부회의에서 1차 종합계획의 종합적/백화점식 과제 나열 방식을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 소위원회별 간담회 결과 공유 및 논의
 -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현장 사서들이 참여하여 현장 경험과 평가를 기초로 2차 종합계획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2차 종합계획에서는 모든 관중(공공/대학/학교 등)의 도서관 및 복합 정보격차 지역(농/산/어촌 등)의 독서장애 해소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장학사로 상향 조정 하는 등 학교도서관 장학체계가 개선되어야 학교도서관에 대한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음
 -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도서관협의회 등의 전문가와 종합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 소위원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의 회의록 등 자세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 위원회와 내부 회의에서 공유함

2. 향후 일정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제9차 포럼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회의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 프레임과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각 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된 이후 포럼을 개최하며, 포럼 내용을 정책연구용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제16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1. 18.(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논의 결과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회의 진행사항 보고 및 논의

- 1월 11일 종합계획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1월 25일까지 부처별, 관종별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종합계획 간사진은 내부회의 결과자료와 관계부처 제출자료를 전체적인 틀에 맞추어 작성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검토 후 심의·조정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을 실시함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의견 반영결과를 수정하여 확정·발표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예정임

2. 향후 일정 논의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 2월에는 제1차 종합계획 평가 및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준비에 집중하고 제9차 포럼은 3월에 개최함. 제17차 소위원장회의에서 포럼 일시, 장소,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를 결정함

제17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2. 22.(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실무사 배치 관련 대응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공문 발송(2013. 2. 13.)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논의 결과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회의 진행사항 보고 및 논의

○ 종합계획 수립 방향 논의

- 위원회의 논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이 아닌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식정보 격차해소 부문은 광범위하여 모든 관중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비전임

-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용역 기술평가위원에 종합계획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기술평가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18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4. 5.(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도서관법령 개정 방안 연구용역 관련 논의 결과

- 「도서관법」 전부 개정을 목적으로 도서관법령 개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4월 2일 사업자 적격심사(기술평가)를 개최하였음. 연구용역 내용은 도서관 기준(시설, 사서배치 기준), 사서자격제도, 사서자격요건, 도서관 등록 등임
-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학계 전문가, 현장 사서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하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함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논의 결과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4월 26일(금) 오후 2시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함

- 5~6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별/관종별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에 관련 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함
- 소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 관련 중요자료를 도서관박물관 정책기획단 내 실무추진TF에 제출함

3.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결과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은 ‘미래 도서관 사서의 역할’(가제)을 주제로 하여 개최함. 포럼에서는 현재 사서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서의 역할과 도서관 서비스 조망을 통해 사서의 정체성과 위상 정립에 기여함
- 포럼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함
 - 일시 : 2013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 포럼 장소 대관 가능 여부에 따라 일시 또는 장소 변동 가능
- 포럼의 주제 발표는 전체 총괄 주제발표(1인, 30분)와 관종별 발표(공공/대학/학교/특수 각 1인, 각 15분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주제발표 : 윤정옥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관종별 발표
 - 공공도서관 :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
 - 대학도서관 : 이나니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
 - 학교도서관 : 송기호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위원장
 - 특수도서관 : 육근해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위원장
 - 사회 : 곽동철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위원장

4. 기타 논의 결과

- 제3기 위원회 활동 보고서 자료집 작성에 필요한 각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을 제출함
-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기관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도서관 관련 업무협조가 용이해졌음.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2013. 3.26,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에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과 같이 교문위에서 법률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 위원회 위원에게 법률안 설명서 두 개 모두의 법률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함

제19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5. 1.(수)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4. 26) 결과 보고 및 논의 결과
 -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5.13~5.19 예정)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한 개 그룹에서 현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정보 격차해소 분야에 대한 FGI를 추진함

- 학교/대학/전문도서관 현황과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FGI(5.20~5.26 예정)는 관종별로 그룹을 달리하여 진행함. 대학도서관분야는 대학도서관연합회와 협조하여 진행함
- 권역별 현장방문 워크숍 및 의견 수렴(6.17~6.30 예정)은 공공도서관 위주로 진행하고 학교도서관분야는 지역별 학교도서관협의회와 협조하며 최대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함
- 연구 중 작성되는 결과물은 위원회와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제3기 위원회(임기 2013. 7.31)에서 종합계획 초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구 일정대로 7월말까지 종합계획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소위원장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정에 예정되어 있는 각각의 FGI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천함

2.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논의 결과

- 주제발표는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포럼 일시는 6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2층 대강의실로 함
- 주제발표자 확정 이후 도서관정책과는 향후 포럼 일정, 원고 접수, 홍보 등 포럼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

제20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6. 14.(금) 12:00
- 참석인원(5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논의 결과

○ 권역별 토론회에 위원회 소위원장들이 참여함

- 6. 17.(월) 14:00~18:00 서울도서관(서울, 경기, 제주)
- 6. 20.(목) 14:00~18:00 광주광역시립도서관(호남)
- 6. 24.(월) 14:00~18:00 대전한밭도서관(강원, 충청)
- 6. 27.(목) 14:00~18:00 부산시민도서관(영남)

- 도정단은 권역별 토론회 회의 논의 내용까지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소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7월 소위원장회의(7. 10, 수)에서 연구용역진과 함께 최종 정리를 한 후 제3기 마지막 위원회 전체회의(7. 22 예정)에 보고함.

2.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진행사항 논의 결과

- 토론자의 발표 원고를 주제발표자인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에게 전달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발제를 할 있도록 함.

- 제3기 위원회 마지막 도서관정책 포럼에 많은 도서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

제21차 소위원장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7. 10.(수) 12:00
- 참석인원(12명) : 위원장 및 소위원장(4명)
 - ※ 연구용역 연구진(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곽철완 강남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학 교수 등 7명)

□ 주요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

1.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논의 결과

- 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제3기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참석 및 보고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일시 : 2013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수산 태평로점(서울 파이낸스센터빌딩 지하 1층)
 - 대상 : 제3기 위원회 위원 전체(당연직·위촉직 위원)
 - 안건 :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안) 보고
 - 회의 일정 : 전체 회의 안건 보고 및 논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찬

2.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관련 논의 결과

- 소위원장은 오늘 배부한 활동 보고서(안)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은 활동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함
- 제3기 위원회 활동 보고서는 발간하여 위원회 전체회의(7월 23일)에서 보고하고 제3기 위원회 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부 국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며 제4기 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기 위원회 활동을 인계함

3.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 논의 결과

- 위원회 워크숍(2012년 9월) 논의 내용 미반영, 학교도서관 핵심가치에 관한 내용 부재, 정보격차해소 해결방안 미제시 등 종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장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제2차 종합계획의 방향, 성격,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 전체회의(7월 23일)에서 보고함

<참고자료 2>

도서관정책 포럼 개요와 논의 내용

I.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요

- 일시/장소 : 2011.12.2(금) 15:00~17:30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송기호(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주 제 : 국민독서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 발제 및 토론
 - 발제 : 국민독서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 권은경(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1) : 학부모가 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활성화 방안 / 여을환(어린이책연구회 상임이사)
 - 토론(2) : 시민(단체)이 바라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발전 방안 /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토론(3) : 장애인학생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 류명옥(부산 대천리중학교 특수교사)
- 참 석 :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등 250여명

2. 논의 내용

- 일반학교에서 장애인 학습이 늘어나고, 같이 활동함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쉬움. 장애인에 대한 사서교사의 대응에 대한 현실상황과 학부모의 반대도 우려됨(중앙여고 서경은 사서교사)
- ☞ (답변 송기호 위원) 현재 5,600여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 강원도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서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도서관 자료가 부족한 현실임(강원도 보조교사)
- ☞ (답변 육근해 위원) 장애우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인식제고 문제,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정책은 어려운 문제임.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학교도서관 차원에서도 지역 점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함. 장애우 대상 자료개발 등 뜻있는 분들과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의 현실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의 역할과 주문 사항은?(신중석 선일 e-비즈니스 고등학교 사서교사)
- ☞ (답변 안찬수 사무처장) 외국에서 학교도서관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학교도서관진흥법(일명 “학교도서관 방해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진정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되도록 사서 교사께서 힘을 모아야 함
- 학교도서관 시행령 해석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간 질의응답 진행

- 시행령 제7조에 있는, 학생 1,500명마다 사서교사 등 1명 기준이 지자체 (교육청)별 총 정원인지? 학교당 총 정원인지?(권은경 교수)
- 현행 학교도서관법령은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지 않기 위한 전략임(안찬수 사무처장)
- 디지털독서운동 전개가 독서의 본질에 대한 다른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제현경)
-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려는 스마트 교육은 두려움.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임(안찬수 사무처장)

II. 제5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 요

- 일시/장소 : 2012. 2. 15(수) 15:00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육근해(한국전자도서관장)
- 주 제 : 병원 및 교정시설 도서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발제 및 토론
 - 발제(1) : “책 읽는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병원(환자) 도서관을 위한 몇 가지 사회적 제안 /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발제(2) : 교정시설 도서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심민석(영종도서관 관장)

- 토론(1) : 의학사서가 바라본 환자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박정미(강북삼성병원 의학정보실 과장)
- 토론(2) : 교정시설 도서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창현(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정관)
- 참석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학계,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 200여명

2. 논의 내용

<질의>

- 포럼이 실무보다 이론에 치중되었음.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국가사무(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 및 교육사무에 대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음(전북도청 문화예술과 이정형)
- 포럼에 환자 및 교정시설 경험자 미 참여가 아쉬움. 죽음과 자유, 소외 등을 주제로 한, 병원이나 교정시설에 비치하면 좋을 도서목록 추천 등이 활성화 되었으면 함(박연식, 도서관설립 관심자)
- 병원도서관, 특히 환자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최근 5~6년 전에 일기 시작했음. 정식 명칭 보다 이동문고의 형태로 서비스는 이루어 졌음. 현실적으로 교정시설보다 전용공간과 자료 확보가 열악한 상황임. 환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의 관심과 병원 평가 시 도서관 보유 항목이 포함되었으면 함(제일병원 이성욱)
- 국가통계시스템 상 병원도서관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음. 환경 변화에 따라 병원도서관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정책기초자료로 다양한 활용에 도움이 되는 통계조사의 참여를 바랍(도서관정책과 차성중)

- 법무부에서도 문화부,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지원 뿐 만아니라 자체적으로 도서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도서관정책과 차성중)
- 환자로 입원했던 경험이 있음. 중소규모의 병원과 환자의 특성에 맞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조진식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학생)

<답변>

- 현재 법무부에서는 수용자들도 지역주민으로 분류하여, 지자체에서 교정시설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개정 중임(정창헌 교정관)
 - 병원도서관의 명칭,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은 쉽지 않은 일이나, 병원도서관에 대한 초기 논의단계임에 의의를 두어야 함(안찬수 사무처장)
 - 병원도서관의 통계조사 누락은 통계지표에 대한 국가(도서관정책과)와 의학도서관협회 간 협의가 필요함. 통계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함(박정미 과장)
- 사회자 마무리 발언(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
- 오늘 포럼은 병원과 교정시설 도서관에 대한 논의의 장, 출발점임. 이를 통해 지식정보 소외시설(병원 및 교정시설 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도개선(정책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III. 제6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 요

- 일시/장소 : 2012. 5. 4(금) 15:00 ~ 17:3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차미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 제 :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 충원 방안
- 발제 및 토론
 - 발제(1) : 총액인건비제의 개선 방안 /
박상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 인력 현황 /
곽철완(강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1) : 공공도서관의 사서인력 수급,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임호균(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 토론(2) :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3) : 부천시지식정보센터 사서 직원 확보 사례 및 향후 과제 /
이재희(부천시 북부도서관팀장)
- 참 석 :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등 200여명

2. 논의 내용

〈질의〉

- 송경진(포럼 문화와 도서관)
 -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직 우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실제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제도의 개선 등은 행정직 측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학제적 융복합화에 따른 업무나 기능의 복합화가 문제라면 행정직의 고유한 업무에도 기타 직렬이 포함되어야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음

-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익을 가시화할 수 있는 노력은 도서관계에서도 꾸준히 해 나갈 의지가 있음. 문제는 이러한 논의와 연구의 결과를 실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알고 싶음. 사서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는지?
-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정규화 사례는 현행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 이동근(서울시 도서관정책담당, 행정직)
 - 현재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도서관 병렬구조로 되어 있는데 양 소속을 지자체 소속 도서관으로 통합하여 자치단체장의 통솔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가? 지자체장을 설득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답변〉

☞ (답변 임승빈 교수)

- 행정수요는 크게 11개 카테고리로 나누었음. 복지, 환경 등이 가장 큰 변수임. 사회변화는 필연적이고, 예산 및 인력충원 문제는 파이가임임. 한쪽이 늘면 한쪽은 줄게 되는 구조임
- 복수직렬이 행정직 우대라는 말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실임. 자치단체 공무원 6급 평균 40대 초반임. 전문직렬을 희소직렬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애초에 5급 승진이 불가하게 되어있음. 근무성적평정의 모수가 많지 않아 A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이직률이 높음. 의사결정자들과 희소직렬자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음. 현 시스템이 행정직에 유리한 것은 사실임
-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밖에 없음. 2007년 사회복지 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했음. 조직적인 활동도 필요함. 포럼 개최, 건의문 제출, 자치단체장 설득 등

세력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의 결과를 가져옴. 이후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의 채용이 늘었음

- 정책결정권자에게 자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 정책결정권자들은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하지는 않음
- 설득을 위하여 앞으로 이러한 포럼이 열릴 때마다 행정학자나 경제학자를 꼭 포함시켜야 함

☞ (답변 박상우 연구원)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것을 보고 놀랐음. 향후 방향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함

○ 기타 의견

- 서혜란 교수(신라대 문헌정보학과)
 - 사서교사 대상 교육에서 느낀 점으로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역할 인식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교사로서의 권리와 사서로서 학교도서관의 위상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상충됨
 -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자와 접촉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서들도 정치력을 갖춰야 함
 -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개념이 확 달라졌음. 도서관의 모든 사서들이 자기반성을 해야 하고, 사서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함

○ 도서관위원회 김봉희 위원장 마무리 인사

- 유용한 말씀 잘 들었음.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었으며, 약간의 반발도 하게 되었음
- 판을 바꾼다는 사고에 동감하며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서들은 더 이상 점잖게 묵묵히 일만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의식을 바꾸고 노력해야 함
-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타 분야 분들도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음.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함

IV. 제7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 요

- 일시/장소 : 2012. 7. 13.(금) 15:00 ~ 18: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곽동철(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 제 : 대학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과 개정 및 추진방향
- 발제 및 토론
 - 발제(1)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과 추진 방향
/ 노우진(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
 - 발제(2) : 학교도서관과 교육정책 : 정책의제화 맥락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등 입법전략을 중심으로
/ 엄기형(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1)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현장의 입장
/ 김기태(서울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장)

- 토론(2) : 학교도서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묻다
/ 김경숙(학교도서관문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토론(3) :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 절차 및 추진 전략
/ 최철호(청주대 법학과 교수)
- 참 석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학계,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 110여명

2. 논의 내용

- 곽동철(사회자,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발의 후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려는 경우 당시 발의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도 이후 법안 발의가 가능한 것인지?
 - ☞ (답변 최철호 교수) 원안 발의했던 의원의 동의를 구해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의 가능함
 - ☞ (답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 원안 발의했던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벗어나도 타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도 발의 가능함
- 이희수(건국대 도서관 부장)
 - 대학도서관진흥법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엇 때문에 상임위 통과를 못했는지,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 ☞ (곽동철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발의된 초기에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맞지 않았고, 작년 2011년에 통과될 듯 보였는데 갑자기 반액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바람에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묻혀버렸음. 지난 경험을 살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현재 대학도서관연합회 법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음

- 기타의견 : 최명수(강원대 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장)
 - 본 도서관정책 포럼의 발제자, 토론자 선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음
 - 포럼 진행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참가자들을 배려해야 함
 -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지방분권적 큰 틀에서 모든 계층의 희망사항을 수렴해서 법 제정이 추진되길 바람

V. 제8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 요

- 일시/장소 : 2012. 9. 14.(금) 14:00~17:40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한국문헌정보학회 등 6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 공동 주최
- 사 회 :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장)
- 주 제 : 도서관정책 제안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
- 발제 및 토론
 - 발제(1) : 국가도서관정책 체계
/ 곽동철(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발제(2) : 도서관이 만드는 21세기 행복한 국가
/ 차미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1) : 도서관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토론(2) : 교수·학습을 위한 만인의 학교도서관
/ 송기호(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토론(3) : 도서관의 혁신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 관장)
 - 토론(4) :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기태(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 팀장)
 - 토론(5) : 영감, 파토스, 도서관
/ 강영숙(소설가)
- 참 석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학계,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 200여명

2. 논의 내용

○ 김은주(한국교육개발원)

- 도서관정책을 다루는 포럼이라 생각해서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또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조직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 도서관계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음. 우리끼리만 모여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임. 오늘의 제안들이 정책화되어 전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정책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우리 사서들만이 아닌 힘이 있는 조직들의 관여가 필요함. 또한 도서관이 인성회복 등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사회전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서관이 사회전체를 위하는 꼭 필요한 기관임을 인식시켜야 함

☞ (답변 **곽동철 교수**) 본 포럼을 원래는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 각 1명씩 주최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12월 대통령선거 때문에 위원회와 문화부가 표면에 나설 수 없고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 문헌정보학 관련 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변경했음

○ 박성재(한성대)

- 지난 국회 회기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과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안이 자동폐기 됐다고 하셨는데 합의 후 시간 관계상 폐기 된 것인지? 아니면 일단 법률안이 상정된 것이고 이후 합의가 없어서 폐기 된 것인지? 또한 다시 법률안이 추진된다면 위 법률들이 통과될 것인지? 그 부분이 쉽지 않다면 도서관계에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 **곽동철 교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발의 시점이 늦어 시기적으로 짧았고 예산이 조 단위로 추계된 상황에서 대학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부처 의견 조정과정에서 발전계획 수립 해당 부처인 문화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대학 반값 등록금 이슈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음. 그러나 다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내년 4~5월경에는 국회를 통과할거라 생각함

☞ (답변 **송기호 교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음. 현재 18대국회에서 법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공동 주관해서 9월 27일에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 도서관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음.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 변화를 참조해서 도서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함. 도서관 이용자 욕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이용자에 기반을 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 **(답변 차미경 교수)** 오늘의 포럼은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의미이고, 앞으로 도서관정책으로 구체화하자는 의도임.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앞으로 전국적, 지역적 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박준(홍익대학교 건축전공 학생)
 - 사서가 아닌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도서관건축을 공부하고 있어서 오늘 포럼에 참석했음. 도서관건축을 전공하다보니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음.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의 선정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고 싶음
 - 오늘의 논의 내용을 들어보니 사서들의 권익 보장과 일자리 창출 위주로 논의되고 이용자에게 대한 배려와 논의가 없어서 아쉬움
- ☞ **(답변 곽동철 교수)**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현재 16개 사도의 50%정도 설치되었는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가도록 힘쓴다면 좀 더 빨리 설치되리라 생각함
- ☞ **(답변 차미경 교수)** 사서들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됨. 오늘은 노력만 보이고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가 안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노력의 결과가 더 보이도록 노력하겠음
- ☞ **(답변 안찬수 사무처장)** 도서관 네트워크의 가장 큰 혜택은 도서관건축에 있을 것임.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5년 이내에 도서관지역 단위로 통합될 것임. 현재 통합된 10여 곳의 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장서 통합검색 서비스가 가능함. 광역단위 대표도서관 지정은 현재 16개시도 중 절반 정도임

○ 발제자(곽동철 교수) 마무리 발언

- 도서관정책이 정치권에 휘말려 작은도서관정책이 마치 도서관정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음. 힘의 논리가 아닌 원칙의 논리 속에서 정책이 결정돼야 함
- 위원회는 모든 도서관인들의 희망으로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도서관인의 꿈을 키워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서관계도 적극 협조하겠음
- 이제까지 도서관 평가지표는 건물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독서프로그램 같은 약간의 소프트웨어 위주였는데 도서관 전문 인력과 교육 부분도 들어가도록 개선되어야 함
- 사서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조차도 도협의 회원이 아닌 경우가 40~50%임. 도협의 회원 수를 늘려서 도협의 힘을 키워야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발제자(차미경 교수) 마무리 발언

-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장을 위해 외부에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관종별 도서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을 해야 함

○ 사회자(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 마무리 발언

- 포럼을 마무리하는 현재 자리에 남아 있는 분이 많지 않음. 어찌면 단결이 잘 안 되는 사서, 도서관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한국점자도서관장으로서 장애인도서관 관련법을 만드는데 12년이나 걸렸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온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 9월 22일

출판/독서/도서관계가 함께하는 책 읽어주기 한마당 행사가 첫 번째 실행의 단계가 될 수 있음

VI.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 요

- 일시/장소 : 2013. 6. 21.(금) 15:00~17:40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대강의실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곽동철(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 제 : 미래 도서관 사서직의 역할
- 발제 및 토론
 - 발제(1) : 미래 도서관 사서직의 역할
/ 고영만(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1) : 도서관의 미래는 사서에게 달려있다
/ 이용훈(서울도서관 관장)
 - 토론(2) : 교육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동반자, 사서
/ 이나니(이화여대 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팀 팀장)
 - 토론(3) : 사서교사의 주제전문성과 교수자로서의 역할 활성화 방안
/ 송기호(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토론(4) : 미래의 정보격차지수는 사서에게 달려있다
/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 관장)
- 참 석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학계,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 200여명

2. 논의 내용

○ 임승호(서울시교육청)

- 사서직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음.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방향과 사서교사의 역할이 잘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그동안 사서교사는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서교사를 보면서 사서교사의 자화상에 대해서 생각해 봄.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사서가 퇴근하고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도서구입을 할 때에도 추천도서를 받아서 하고 있음. 아이들을 위해서 수서목록을 정할 때에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서교사들은 열악한 주변 환경만을 얘기함. 방송국의 자료실이 왜 생존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
-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사서교사의 자리를 무자격자, 비정규 사서가 넓혀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음
- 학교에는 분명히 전문적인 사서가 있어야 함. 그렇다면 사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이나 양성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람

☞ (답변 송기호 교수) 사서교사 자격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서자격뿐만 아니라 교원의 자격을 강조하고 있고 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사서교사 양성에 필요한 8개의 기본이수과목이 있지만, 충실히 다 가르쳐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임. 그렇지만 사서교사는 임용과정을 볼 때 장서선정이나 서비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질은 가지고 있을 것임. 사서교사는 학교에서 사서의

모습, 도서관의 모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임. 도서관계 내부에서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교육과정에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고 격려하고, 또 양성과 연수과정을 마련해서 재교육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생각함

○ 고병률(제주도서관)

- 사서공무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 법을 접근해서 생각해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함. 법이 미흡했을 때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도서관법을 보면 사서배치기준이 몇 십 년 동안 그대로 있고, 이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은 현실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용훈 관장님께서 사서를 늘릴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 ☞ (답변 이용훈 관장) 정원확보 문제는 모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임. 사서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그동안 직무분석도 하고, 정원 확보를 제도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음. 그럼에도 결정권자들의 이해와 설득이 어려운 현실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함.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들을 결정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치화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설득력 있게 요구를 하면 대화가 시작될 것임. 정원확보 문제는 도서관계에서 다 같이 요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함

○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재단)

- 옛것 그대로 돌아가면서도 창의적인 상상력이나 변화가 입혀질 수 있다고 생각함.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편목이 중요하고, 사서 고유의 전문성을 담보해 줄 것 이라고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수준이 아닌 기술적인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편목 데이터에 내러티브를 읽힐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편목에 가능하지 아닐까 하는 궁금함이 있음
- 데이터의 질, 양 이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함. 도서관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함. 지금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가깝게 체감하고 있는 포털과 연계를 할 수 없는지요? 포털과 도서관의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어서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를 도서관계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 (답변 고영만 교수) 오늘 발제는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 사서직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임.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 사서의 역할과 도서관 직원의 역할이 구분되어야함. 사서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전에는 편목과 관련 되어서는 사서만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IT가 들어와서 사서가 하지만, 한 사람이 해서 나눠주는 형식이 됨. RDA체제로 가면 공동의 표준화된 통일화된 목록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도서관마다 컬렉션의 수준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RDA체제로 가면 모든 도서관이 각자의 컬렉션에 맞는 수준에서 정해야 함. 각 도서관마다 새로운 편목과 창의적인 편목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함. 이 부분이 반드시 사서직이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또 하나 큐레이션 부분은 연구 지원하는 참고서비스로써 자료를 컬렉션하고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큐레이션은 통일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님. 자료가 많지 않다면 큐레이션의 업무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오픈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 중요하게 됨. 이것이 옛날 것에 독창적인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함

○ 김명선(남산도서관)

- 미래 사서를 말함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서가 전문가로서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가 또한 중요함.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사서의 역할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 도서관이 공무원 총 정원제로 인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정원 외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음. 사서직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인력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서도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함. 총 정원제, 위탁으로 해야 하는 논리에 대한 접근을 쉽게 수용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반론도 할 수 없는 현실임

☞ (답변 **곽동철 교수**) 정원 관리는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움.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서집단도 당위성을 갖춰놓아야 함. 사서교사도 초기에는 정책적인 정부압력을 가해서 얻어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리 논의해도 해결이 될 수 없음. 이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가 나와 있고, 도서관협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남태우(중앙대 교수)

-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를 듣고 몇 가지 단상을 말씀을 드리하고자 함.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바라보는 인식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하드웨어로서의 도서관, 도서관 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로서의 장서, 그리고 이용자임.

이것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 본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도, 즉 해석만 달라질 뿐,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음

- 두 번째 단상은 Specialist인지, Generalist인지의 문제가 있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업무가 분화되고 직무영역 간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는 데서 오는 자화상을 그릴 수 있음. 좀 더 나아가서 안으로의 사서의 자화상과, 밖에서 본 사서의 이미지상이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서 사서들의 딜레마가 있음. 직업의 분화와 융합이 끊임없이 이어져 옴에 따라 사서의 영역도 넓혀가야 함. 관종별 도서관 사서, 서비스 대상별 사서, 도서관 시스템별 사서 등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문헌정보학의 핵심요소는 지적작업이 있는 분류, 목록, 참고봉사 서비스임. 여기에서 우리는 독창성을 찾아야 함. 훌륭한 사서 없이는 위대한 도서관이 존재할 수 없음

○ 사회자(곽동철 청주대 교수) 마무리 발언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잘 갖춰지면 도서관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함. 어느 전문직 단체라도 우리 사서 단체만큼 회원 가입률이 적은 단체는 없음. 정말로 전문직으로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전문직 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 유일하게 사서직 만이 하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위직급 사서가 상위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위직급 직원을 다루고 있음. 이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임. 결론은 우선 전문직 단체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이러한 전문직 단체에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뚫고 나가는데, 사회적 투쟁력을 드높여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생각함

○ 김봉희 위원장 마무리 말씀

-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은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사회 현실에서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괴리가 큰지 충분히 알 수 있음. 이러한 갭을 극복하고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관중과 상관없이 어느 도서관이라도 도서관이 먼저 이용자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함.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서 이끌고 만들어주고 보여주면서 사서의 인식을 달라지게 해야 함. 오늘 도서관정책 포럼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나. 소위원회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공공도서관 소위원회〉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 추진 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각 단위 도서관의 사명, 비전, 전략 등 발전방향 수립 시 관중별 협의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을 각 단위에서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목표와 성과를 사회적 언어로 표현하여 대 국민 메시지로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로 전달되기보다 중앙, 지방, 각 단위에서 계획 및 집행하는 것이 도서관 발전 방향과 취지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각 단위의 선택과 집중을 기대할 수 있음

-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는 시기부터 각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주고 현장을 존중 및 자극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가 현장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 동기 유발, 건강한 긴장, 사회적 책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도서관 양적 증가에 따른 거리상 접근성 향상을 물리적, 지적, 경제적, 정서적(심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등 질적인 개선으로의 변화를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공공도서관의 중점 사업은 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협의회 및 현장 사서들의 모임 등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일선 도서관 및 현장 사서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며, 각 단위별 도서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종합계획은 ‘가치’를 담은 표현으로, 나열식/병렬식을 지양하고 외부 사회와의 소통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함
 - 예를 들어 ‘인력’문제 해결이 집중 과제라면, 이를 대국민 가치로 표현하고 전 관중에서 전략 개발
- ※ 1차 종합계획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소통과정 필요

○ 과제 및 전략 제안

- 공공도서관 공간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

- 커뮤니티, 관계, 만남, 교류, 협동(Collaboration) 등 커뮤니티의 통합을 위한 공간 구성 재검토
 - 도서관 면적을 줄이더라도 공간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여 유효면적 비중을 강화하면 접근성 강화 가능
 - 물리적 도서관이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
- 공공도서관의 비전 키워드
 - 공동체, 공공의 공간에서 삶에 대한 신뢰 회복(확 열린 공공성 강조)
 - 긍정적인 기운
 - 공동체의 일원
 - 커뮤니티의 소통
 - 소외 계층 outreach, 도서관 카드 제공
 - Books are for Use
 - 전 국민 도서관카드 갖기 운동
 - 다양성과 자율성 실현 지원
 -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 정리
 - 작은도서관 정책 모순(민간 중심, 사립임에도 공립에서 지원)
 - 2006년 작은도서관 진흥 이전과 이후 작은도서관 성격이 바뀜
 - 도서관 기준 현실화 및 도서관 관련 현안 검토
 - 단위도서관의 특징과 자율성 인정
 - 인구 대비 면적, 인구 대비 장서 기준 검토(인구밀도 고려 등)

- 신설 도서관의 면적 및 1인당 면적의 확대
- 보존서고는 중앙관이 감당
- 공부방 면적 축소(2000년 이후 개관 도서관의 1/3은 공부방 없음. 주민들의 공부방 요구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필요)
- 건립 당시에는 예산 중심, 건립 후에는 운영 고민에 대한 문제 해결
- 거리, 인구 대비 도서관 수,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 개념 극복
- 평생학습의 방식 변화
- 자체 별 차등 폐지(유동인구 증가 환경)
- 공부방 등 도서관 기능이 아닌 기능은 별도 건물로 건축하고,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면 공용면적 대폭 축소 가능
- 아파트 공용면적을 독서실로 활용하도록 권고
- 도서관 신축 요구 시 웹 시스템 구축으로 신축 규모 결정
- 2013년부터 노후 20년 이상 도서관의 리모델링 예산 지원(광특예산)
- 농어촌의 도서관 기준을 1)거리, 2)행정구역, 3)봉사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option 제공
- 법적인 시설 위주의(예를 들어 복합건물 신축 시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체육관 다음 순위인 도서관은 고층인 6~7층으로 이동) 건축 현실에 따른 도서관 건축 및 시설 가이드 필요
- 공공도서관장의 권한과 지위 검토(직인, 공모제 등)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회〉

- 제1차 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부문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있음. 법 제정이 2009년 초에 문화부 반대로 무산되어 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음
 - 추가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 발생
 - 각종 지표의 정량화를 위한 기준 설정 연기

 - 제2차 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국공립/사립/전문대학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 대학도서관 평가-지원체제 확립,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위상 제고, 학교도서관 연계 도서관전담부서 설치 등 포함)

 - 기본적으로 제1차 계획이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계획의 내용을 상향 조정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추진
 -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의 다변화(지역 학교도서관 지원 등 포함)
 - 대학별 대학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센터화 추진(대학 자체 생산 지식 정보자원 통합 수집 관리)
 - 대학도서관장 또는 사서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에 연구자로서 참여방안 마련
- ※ 대학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중임(KERIS 주관)

- 전문도서관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도서관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필요
 - 향후 워크숍부터는 전문도서관협의회장 등 참석 정례화

〈학교도서관 소위원회〉

- 학교도서관 부문에 대한 제1차 종합계획은 잘 설정되어 있으나 학교도서관 현장에 사서교사 배치가 없어 계획을 실천해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성과가 전무한 상황임. 상징적인 문구들이 많아 기본적으로는 1차 종합계획의 계승 및 발전이 필요함. 자격유형별 직무분석, 자격유형별 배치기준 마련 등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학교도서관의 비전 설정 기본 방향
 -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도서관
 -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고, 학부모가 든든하게 여기는 학교도서관
 - 교실의 이미지보다는 가정(집)과 같이 편안하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학교 도서관 지향

- 학교도서관의 핵심 추진 전략 설정 방향
 - 경영활성화 기반 조성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 학교도서관 진흥재단 및 지원시스템 도입
 - 학교 유형별 도서관 기준 마련

- 사서교사의 전문성 강화
 - 자격유형별 직무분석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교육 역량 강화
 -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독서교육 실시
 - 평생 필독도서 개발

-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 정보접근성 및 연계를 위한 DLS 개편
 -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강화

- 추진전략 설정 방법에 대한 의견
 - 교과부, 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학교도서관협의회 등 연계
 - 교과부, 교육청의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과의 연계
 - 도서관 전체 비전 확정 후 관종별 핵심가치와 전략 개발로 도서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각 전략별로 실천 책임기관(자)명시- 연간 추진실적, 평가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 제1차 종합계획의 정보격차해소 부문은 공공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은 소외된 측면이 있음. 지식정보 격차해소와 관련한 발전계획은 모든 관중에 다 포함되어야 함

- 비전 : 모두가 행복한 문화 복지 구현(사회통합)

- 추진전략
 -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전 국민의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세 신설(외국 사례 벤치마킹)로 문화 복지 구현

- 주요정책과제 : 지식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전 국민의 도서관 서비스
 - 독서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병영, 병원,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확대
 - 접근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세부과제
 - 독서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병영, 병원,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확대
 - 독서장애인 대상 범주 확대 및 심화
 - 정책 일원화 및 서비스 지원강화(흩어져 있는 정책의 일원화)
 - 서비스 기준 개발
 - 장애인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병영, 병원, 교도소도서관, 선상 도서관 등 설치 확대

- 접근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독서기기 개발 및 보급, 활용교육
 - 구연동화 전문가 양성
 - 문화교육강사 전문가 양성
 - 자료 및 서비스 실시 강화
 - 웹접근성 강화
 -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강화
 - 문해교육 강화(한국어, 컴퓨터)
 - 정보활용교육(콘텐츠 활용교육, 데이터 활용교육) 강화

- 지식정보소외계층 도서관
 - 실버
 - 장애인
 - 다문화
 - 농산어촌, 취약계층
 - 병영
 - 병원
 - 교도소
 - 선상도서관

- 주요정책과제 : 도서관세 신설(외국 사례 벤치마킹)
 - 도서관세 신설(각종 기금에서 일정 % 도서관세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포함)
 - 독서세(reading tax) 신설(중하위권의 시민이 책을 구입할 때 연말정산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

- 특수자료 출판을 위한 세제 혜택

다. 기타 주요 논의 및 제안 내용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부문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후 계속사업 / 중지사업 / 신규사업 등의 구분이 필요함

○ 연도별 시행계획 부문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자료가 필요함
-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미제출 기관에 대한 벌칙 부여제도화가 필요함

○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부문

- 제1차 종합계획의 틀을 유지하여 제2차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전체 틀을 새롭게 하여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함
- 제2차 계획 수립시 국가도서관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제2차 계획에서 5개년 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관종별 도서관의 발전상황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며, 도서관발전 방향에 대한 도달 시점도 다름. 도서관 관종 간의 연계를 통한 공동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에 대한 관종별 현장 실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사서역량 강화방안, 도서관정책 일원화 등 공통 영역은 중앙에서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1차 종합계획 기간은 도서관의 확충기로 양적 증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2차 종합계획에서는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예를 들면, 각 서비스의 대상 범위 확대, 세부계획 심화, 인력문제(인력 확충 및 재교육 등) 해결 계획,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일원화 문제 등임
- 2차 종합계획을 만든 상태에서 하달/시행이 아닌 여러 참여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약 10여 군데의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음. 2차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발전계획의 참고도 필요함
- 1차 종합계획이 각 관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측면을 2차 종합계획에서는 극복해야하며 사회적 공공성 가치가 계획에 포함되어 전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사항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10개의 주요부처 장관이 당연직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기관의 적극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임
- 향후 워크숍에 개최 시에는 관종별 도서관협의회 회장의 참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3>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인사말 및 축사 모음

1.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 위원장 인사말

‘국가자원으로서의 도서관’을 인식시키고 정립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어느덧 2기 활동을 마치고 2011년 8월 1일자로 새로이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발족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기 활동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를 마련하였고, 지난 2기에서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비전으로 도서관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각 관종의 도서관들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해 각 관종의 도서관들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포럼을 개설하여 도서관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숙의의 장을 개설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공론화함으로써 도서관 문제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3기 위원회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기의 활동을 토대로, 이번 3기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이 단순히 하나의 교육시설 혹은 문화시설이 아니라, 한 개인과 나라, 더 나아가 인류의 발전을 지탱하는 지적 토대로서 소중한 국가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왜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소중하며, 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이 학교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인지, 국가의 산업 및 지식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있어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장애인과 특수시설에 있는 소수를 지원하는 도서관들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 도서관인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주인이자, 도서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림으로써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가자원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2기 위원회 기간 중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 전달하여 새로운 국제회의가 올해부터 개설됩니다.

도서관의 존립과 기본 목적을 위협하는 오늘 날의 상황은 도서관이 이용자와의 소통을 멀리하거나, 국지적인 협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새로운 국제회의의 창안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옹호를 이끌어내고, 차근차근 내부의 쌓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뜻심 있는 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해 주셨던 도서관계의 모든 종사자들, 앞으로 도서관을 이끌어 나갈 문헌정보학도들, 음양으로 도서관을 지지하고 후원해 오신 이용자들,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과 질책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하는 3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2011. 10. 19.)

전국의 도서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오늘, 전통과 미래, 과학과 문화의 조화를 기치로 한 이 곳 대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전국도서관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광식 장관님,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 대회를 주관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서관협회 남태우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2기에 이어 지난 8월 1일 발족된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으로 2007년에 출범하여 2011년 현재 제3기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도서관인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서관인의 축제인 “도서관대회”가 올해로 48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서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폐가식 서고와 낡은 목록카드, 수험생들이 가득 찬 열람실로 기억되던 예전의 도서관은 이제 추억 속에서나 어렴풋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대신, 지식뿐 아니라 문화와 정보를 접하는 최첨단의 장소로서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치는 열람실과 디지털자료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하고 또 발전해왔습니다.

이처럼 감성과 기술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의 변화는 도서관과 사서 모두에게 새로운 시험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과 소셜 네트워크로 상징되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신속하게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길잡이로서 사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정보사회의 중심, 도서관의 스마트한 변화”라고 하는 이번 도서관대회의 주제는 이러한 우리 도서관과 사서들의 고민을 담은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뿐 아니라 사서 역시 스마트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제한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스스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도서관대회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시도와 고민, 모색의 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우리 도서관계의 바람직한 변화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각 국의 도서관 정보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모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자원으로 보는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8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2011년 세계 도서관정보대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 관심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60여 개국 130여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각 국의 참가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토론하고, 국가별 도서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도서관의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문화와 지식, 사회적 구심체로서 인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존립의 당위성을 위협받을 수 없는 정신적 기반이며, 미래 세대를 지켜 낼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고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 도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서관과 사서상이 정립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변화한다면 오늘 날의 다양한 도전은 우리 도서관과 사서에게 도약의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인 도서관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즐거운 축제, 유익한 학술제인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1 OAK(Open Access Korea) 회의 축사(2011. 10. 26.)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 입니다.

먼저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영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중국의 장시야오린 관장님」, 「일본의 준아다치 부장님」, 「한국의 최희운 본부장님」 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서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오픈액세스 주간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오픈액세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오픈액세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 환경은 정보의 빠른 유통,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유통으로 인해, 구독료 증가, 라이선스 제약 등 정보접근 장벽을 더 높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술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은 새로운 토양의 지식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이론과 학문도 좋은 책과 도서관을 필요로 하듯, 오픈액세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관리와 저장을 위해 학술저널과 리포지터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오픈액세스 동향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논문의 약 20% 정도만이 오픈액세스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오픈액세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술정보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지지하고 있는 UNESCO를 비롯, 오픈액세스 출판비용을 지원하는 스콧쓰리(SCOAP3) 컨소시엄 등은 국제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확산 및 관리”사업 등,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의 구축과 공공연구 성과물의 공공접근을 위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과 사서들은 정보의 보전과 전송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창조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 역시 오픈엑세스를 기반으로 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함으로써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오픈엑세스 코리아 컨퍼런스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식정보의 나눔과 공유라는 당면한 문제를,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에게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힘과 희망을 봅니다. 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 오픈엑세스로 가는 여정의 더욱 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 축사(2011. 11.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먼저, 제31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은철 회장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는 1972년 이래 줄곧 다양한 회의와 연수 등을 통해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종을 막론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을 바탕으로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이 숨 쉬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활동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대학은 학문을 통한 진리의 탐구, 이성의 고양을 통한 지성의 단련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바른 인성과 함께 현실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명철한 이성을 갖춘 지식인을 길러내는 곳이며, 이러한 대학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연의 목적과 임무보다 보이는 성과와 기능적인 평가들로 인한 위기와 상실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듯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아진다면 대학도서관의 가치는 새롭게 확인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도서관을 디자인하다”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대학도서관 관리자 여러분들은 몸담고 계신 대학도서관 운영의 중추적 책임자이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길의 모색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박3일 동안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기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사를 개최하신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더불어 꾸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국립중앙도서관 ‘열두 서고 열리다’ 특별전시회 축사(2011. 11. 1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6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열두 가지 수집자료를 주제로 한 「열두 서고, 열리다」 특별전시회의 개최 역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를 기획하고 주관하신 우진영 관장님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광식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역동의 시기에 태어나서 지난 66년 동안 국가의 지식정보자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조직하여 제공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납본제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인 수집은 물론 체계적인 서지정보 구축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한 지식정보의 확산 및 국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시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지식자원만이 아니라 오래된 귀중한 자료의 복원과 보존에도 힘을 기울여 과거의 유산이 오늘 날 재창조의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열두 서고, 열리다」 특별전시회는 그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수집 자료들을 공개하는 자리로, 잡지 창간호, 시대별 교과서, 딱지본 소설, 고지도, 국제기구자료 등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국립도서관의 활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가 일반 국민에게는 지난 세월에 대한 향수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즐거운 기회가 되고, 한국학, 서지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자료의 소재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도서관을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지식정보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탄생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고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지식의 보물들이 이렇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쐬게 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더 없는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6주년과 「열두 서고, 열리다」 특별전시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2012 도서관인 신년인사회 축사(2012. 1. 18.)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인들의 신년 인사모임에 참석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님, 감사합니다. 또한 기쁘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도서관협회 남태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서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서관인의 뜻이 한 곳에 모여 발족하게 된 우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바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서관계 현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인 도서관 정책포럼 실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도서관정책이 좀 더 국민과 가까워지고 도서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11년 말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될 예정이며, 전라남도 대표도서관 및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개관하는 등 작은 발걸음이지만 도서관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총선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새로운 선출이 있는 해이며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발전 위축이 예상되는 정치 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경일수록 우리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며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문화적 정책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이하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흑색은 어둡고 두렵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색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어느 색에도 치우치지 않는 강직함과 고귀함을 지닌 색이라고 합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서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뜻을 하나로 하여 강직하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슬기로운 지혜와 희망을 갖고 새롭게 비상하는 201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도서관문화」 2012년 2월호(통권 제440호) 칼럼

도서관의 미래는 현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이제는 꽤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아늑하고 깨끗한 시설에 새로 나온 책과 DVD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관람하고, 좋아하는 책의 작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듯 편한 자세로 책을 읽는 일이 이제는 공공도서관의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이런 도서관서비스를 누리려면 조금 더 많은 시설, 개량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잘 운영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비단, 공공도서관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주 5일 수업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도 많은 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678개 초중고등학교 중 11,461개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은 비정규사서를 포함 고작 1관 당 0.5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따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11년 8월 3기가 출범된 이후에도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2기부터 도서관계의 현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인 「도서관정책포럼」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민 독서 문화 향상과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병원 및 교정시설 도서관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럼의 개최만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서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분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매년 실시해오던 관종별 도서관운영평가 역시 각 관종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모범이 될 만한 도서관운영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수립도 남아있는 위원회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그 간의 조사와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서관계획을 간추리고 각 자치단체의 실행계획이 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목표와 비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통해 국가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특별관심그룹(NILP SIG)을 설치하고, 이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올해 대회를 준비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SIG를 위한 준비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국가도서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조사자료를 준비하여 향후 SIG 활동을 통해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대회주관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획은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탄탄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려면 오늘의 준비가 굳건하고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 우리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여러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낸다면 분명히 단단한 오늘과 탄탄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다양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위원회 나름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계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에 위원회의 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당면한 숙제들에 얽혀있는 다면적인 면들을 고려해 볼 때 횡행하는 성과주의 척도의 평가로는 짚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도서관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고민과 노력, 참여가 없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활동에 힘이 되도록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제8차 도서관정책 포럼」 축사(2012. 9. 1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예전에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가 3개 정도였을 때 학회 공동으로 이런 모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가 6개로 확대되어 내용적으로 학문의 폭이 보다 더 넓고 깊어진 이후에 학회 공동 포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뜻 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서지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관계자 분들 모두에게 축하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정책제안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라는 주제로 국가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제해 주시는 두 분의 교수님과 도서관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해 주실 다섯 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의 곁에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학회, 현장의 사서 등 도서관인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도서관 현안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정책화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도서관 정책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의 핵심 업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분야별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철 대학전문도서관 소위원장님, 차미경 공공도서관 소위원장님은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시고, 송기호 학교도서관 소위원장님은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사회로서 포럼을 이끌어주실 육근해관장님은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회 소위원장님 4분 모두가 오늘 포럼에 총 출동을 한 셈입니다.

제가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계에서 부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며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문헌정보학 모든 학회와 현장의 사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두 모여 한바탕 의견을 나누고 도서관정책을 제안하는 의미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국가도서관 정책을 조정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도서관 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으로, 그리하여 국가도서관정책으로 결과 맺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 정책위원장으로, 그리고 한사람의 도서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들으며 공부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2012. 10. 17.)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오늘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회를 주관하신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과 협회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행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도서관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런 행사도 없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서관의 미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9회 전국도서관대회의 주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도서관 : 도서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다”입니다. 지난 9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 학회와 함께 “사회소통과 혁신, 도서관과 함께”라는 주제로 도서관정책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회주제와 지난 포럼의 내용이 모두 ‘새로운 도서관’을 희망하는 우리의 비전을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보고로써 보존과 관리를 그 기본 기능으로 중시했었다면 오늘 날의 도서관은 그 보존된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뜨려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킴으로써 세상을 소통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인 지식과 정보의 매개자로서 역할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포럼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의 현안과 더불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자원이라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습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서관, 기관과 도서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들의 협력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상을 일궈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공존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가 병행되며 보존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창출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는 관문인 동시에 오랜 유산을 보존하는 아카이브로서의 도서관을 지향하자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앞으로 우리가 그려나갈 도서관의 큰 밑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인력, 도서관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때로는 주춤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 왔고 앞으로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발목을 잡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와 열매를 망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올바른 도서관을 세우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도서관대회의 주제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으로 도서관의 위상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셨고 앞으로 더 많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도서관평가를 통해 수상하신 도서관들에게 축하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도서관인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도서관 개관식 축사(2012. 10. 2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 광장을 정원처럼 앞에 두고, 역사적인 등록문화재 건물에 입주한 서울도서관의 개관을 도서관인으로서, 서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으로, 최근에는 월드스타 가수 싸이의 콘서트로, 서울 광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서울의 대표도서관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공공도서관 못지않게 세계 속의 상징적인 도서관으로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제1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2012. 11. 29.)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제1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 기관으로서 오늘 총회를 준비하신 황창화 국회도서관장님,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시는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서은경 학회장님, 그리고 협의회 사무국의 임직원 여러분과 발표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도서관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발족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관종을 범주로 하는 보통의 도서관협의회와 달리 디지털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약 1,4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식정보공유협의체로 발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맞춰 각 회원기관들의 정보공유와 활용이 원활하도록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환경의 개선도 꾸준히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도서관과 달리 오늘날의 도서관은 발달된 디지털기술과 통신에 힘입어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쉽게’라는 이면에는 높은 비용, 매체 활용 능력 등 빠르고 쉬운 정보유통과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들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들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에게 각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를 기념해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가 “전자도서관의 미래, 공유와 협력”이라는 것도 디지털자원의 구축이 궁극적으로는 정보자료의 공유와 각 기관 간의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이며,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파워 쉬프트의 시대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등장한 낡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낡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관중을 떠나 정보자료의 공유와 협력은 모든 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공유와 협력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을 지지할 것이며, 대학과 전문도서관에 있어서의 공유와 협력은 다양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학문의 성장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학술정보협회가 디지털정보 공유, 정보격차 해소, 학술정보유통망 구축, 저작물이용허락 활성화 등등 미래도서관과 관련된 의제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각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유통과 활용에 있어 한층 진일보한 활동들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날의 성과와 발전을 이뤄내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함께 큰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제주에서의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한국학술정보협회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더욱 튼튼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학술정보협회의 도서관인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파주 물푸레도서관 개관식 축사(2013. 3. 29.)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물푸레도서관의 개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도서관문화를 만들어 온 파주시에 또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문을 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파주시는 다양한 출판사와 도서유통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출판도시라는 출판문화클러스터와 잘 계획된 공공도서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책의 도시이자 도서관의 도시입니다. 또한 시설뿐 아니라 책을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자랑할 수 있는 책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동안 파주시와 파주시민들이 보여 주신 도서관과 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앞선 활동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만큼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계를 대표해서 이인재 파주시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도서관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사서를 통해 만나는 정보기관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고, 그 소통을 발판으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입니다.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은 정보통신환경과 웹이라는 가상공간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도서관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은 잘 조직화된 자료와 이를 매개하는 훈련된 전문사서로 이루어진 도서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개관한 서울도서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요구에 따라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관문화의 성숙은 단지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도서관의 책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는 자치단체와 그 안에서 일하는 사서들, 그리고 도서관을 삶의 유용한 장소로 활용할 줄 아는 각성된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점을 이미 파주시는 많은 부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푸레도서관의 개관을 맞아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시와 파주시민들에게 오래된 도서관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도서관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파주시의 또 하나의 자랑이 될 물푸레도서관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4>

사진으로 보는 제3기 위원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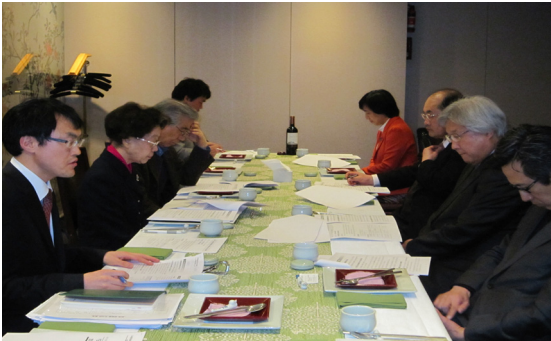
1. 위원회 회의



〈'11. 8.11 / 위촉직위원 전체회의〉
- 제3기 위원회 발족 및 상견례



〈'11.11.30 / 위촉직위원 전체회의〉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담회



〈'12. 4. 6 / 위촉직위원 전체회의〉
2011년도 시행계획 실적 보고



〈'13. 1.30 / 위촉직위원 전체회의〉
제2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검토



〈'13. 7.23 / 전체회의〉
제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



〈'12.10.19~20 / 위촉직위원 워크숍〉

2. 도서관정책 포럼



〈11.12. 2 /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



〈12. 2.15 / 제5차 도서관정책 포럼〉



〈12. 5. 4 / 제6차 도서관정책 포럼〉



〈12. 7.13 / 제7차 도서관정책 포럼〉



〈12. 9.14 / 제8차 도서관정책 포럼〉



〈13. 6.21 / 제9차 도서관정책 포럼〉

3. 위원장 활동



〈'11. 8.15~20 / 2011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장소 :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11.10.19~20 /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11.10.26 / 2011 OAK(Open Access Korea) 회의〉



〈'11.11. 2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



〈'11.11. 4 / 한국점자도서관 역사사료관 개관식〉



〈'11.11.15 / 국립중앙도서관 '열두서고, 열리다' 특별전시회〉



〈11.11.29 / 강릉지역 도서관 사서 간담회〉



〈11.12.19 / 강화지역 도서관 사서 간담회〉



〈12. 1.10 / 이진아도서관 방문〉



〈12. 1.18 / 2012 도서관인 신년인사회〉



〈12. 3.22 / 정독도서관 방문〉



〈12. 5.16 / 경남 창원지역 도서관 사서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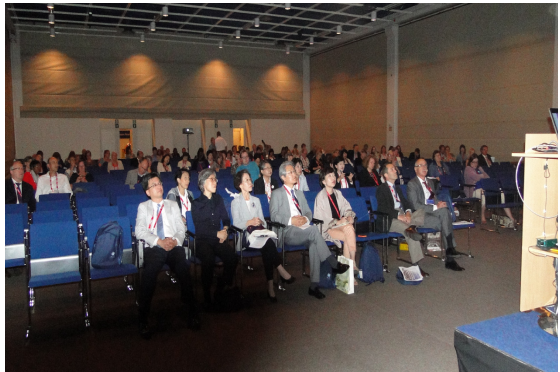
〈'12. 6. 4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면담〉



〈'12. 6. 8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12. 6.13 /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 면담〉



〈'12. 8.13~18 /
2012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장소 : 핀란드 헬싱키



〈'12. 9.20 / 파주 북소리 2012〉



〈'12. 9.24 /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



〈'12.10.15 / 2012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 간담회〉



〈'12.10.17~18 /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



〈'12.10.26 / 서울도서관 개관식〉



〈'12.11.29~30 /
제1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12.11.30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사서 간담회〉



〈'13. 2.28 /
제64차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



〈'13. 3.29 / 파주 물푸레도서관 개관식〉



〈'13. 4. 8 /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아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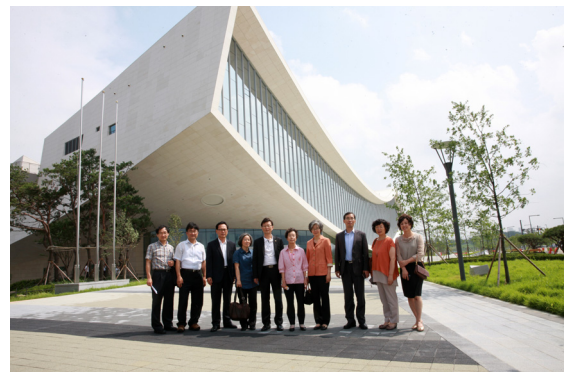
〈'13. 5.22 / 2013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13. 7. 3 /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3. 7.10 / 제21차 소위원장 회의〉



〈'13. 7. 23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